



교과서 빈출 고전문학 작품 총정리

단권화

국어영역
고전문학 작품단권화

정답과 해설



I 고전 운문



고대 가요

001

공무도하가 _ 백수 광부의 처

본문 016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이별, 애정, 체념

01 ⑤

02 ⑤

03 ②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이별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2 화자의 정서 파악

이 작품의 화자는 임의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슬퍼하고 있다. ⑤의 화자도 임과의 사별로 슬퍼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를 성숙과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② 화자는 오랜 병고 생활에서 절망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은 화자의 소망과 반대되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

오답피하기

- ① ㉠의 '물'은 충만한 사랑의 이미지로서 임을 보내지 않으려는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다.
- ③ ㉡의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자 불가항력적인 이미지로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사랑의 이미지인 ㉠과 달리 ㉡, ㉢은 임과의 이별과 임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 ⑤ 백수 광부는 물을 건너려다가 빠져 죽게 되므로 ㉠, ㉡, ㉢은 모두 임의 죽음이라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과 연관된다.



고대 가요

002

구지가 _ 작자 미상

본문 01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우두머리, 왕, 가정

01 ⑤

02 ⑤

03 ④

04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집단적 서사시이지, 개인적 서정시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③ 가야의 건국 신화인 김수로왕 신화에 실린 노래로 왕을 맞이하기 위해 부른 영신군가(迎神君歌)이다.
- ② 임금의 출현을 염원하고 그 염원을 이루려는 주술가이며, 흠을 파면서

불렀다는 점에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노동의 피로움을 덜고자 하는 노동요적인 성격도 지닌다.

④ 거북이에게 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워 먹겠다 고 위협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이 작품은 왕의 강림, 즉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맞이하려는 소원을, <보기>는 수로 부인을 구출하려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불려졌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의 거북은 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 <보기>의 거북은 수로 부인을 빼앗아 간 존재이자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술의 대상이다.
- ② 이 작품과 <보기>는 '호명-명령-가정-위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아/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이 작품과 <보기>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북을 구워서 먹겠다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 ④ 이 작품과 <보기>는 집단 가무의 형태를 띤 무가이다.

3 작품의 구조 파악

㉠은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은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는 위협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4 시어의 의미 파악

㉠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이 작품의 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은 '왕' 또는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의 강림'이라는 화자의 소망에 해당한다.



고대 가요

003

항조가 _ 유리왕

본문 018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임, 피꼬리, 선경 후정

01 ④

02 ①

03 ①

1 작품의 특징 이해

'정답게 노는데'와 '외로울사'가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구라 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부각한다.

오답피하기

- ① 피꼬리가 우는 계절이 봄이므로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임을 잃은 화자의 외로운 정서와 조응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현재 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는 '정읍사'이다.
- ③ 임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개인적 서정시이다.
- ⑤ 우리말로 불리던 노래를 나중에 한문으로 적은 것이다.

2 작품의 구조 이해

A에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한

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③ A에서는 찌꼬리의 모습을 훨훨 난다라고 표현하여 동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B에서는 이를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는 서로 정답게 놓고 있는 찌꼬리의 모습이, B에서는 입을 잃고 돌아가는 화자의 외로움이 나타나 있다.

⑤ A에서 정답게 놓고 있는 찌꼬리의 모습은 B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과 대비되는데, 이처럼 자연물과 인간이 서로 상반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감정은 더 심화되게 된다.

3 시어의 기능 이해

①은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존재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⑥ 중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넷물'이다. '넷물' 역시 화자와 상반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입이 돌아오지 않아 짹짹 마음이 언 채로 살아가는 화자와 달리 정월의 '넷물'은 녹아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가요 004

정읍사 _ 어느 행상인의 처

본문 019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기원, 위험, 부정적

01 ② 02 ⑤ 03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고려 가요는 후렴구가 있고 3음보 형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작품은 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형태를 지닌, 시조의 원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백제 시대의 노래이며, 조선 시대에 한글로 정착된 작품으로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③ 2행, 5행, 8행의 '시'라는 신어말 어미는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존칭의 뜻을 지녀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라는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돌'이라는 광명과 '즌 디(위험한 곳)'라는 어둠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대립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2 시어의 의미 비교

①은 화자가 입이 안전하기를 비는 천지신명과 같은 대상이므로 기원의 대상이며, ②은 외로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서의 임금을 가리킨다.

오답피하기

① ②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자 임금을 의미한다.

② ①은 천지신명, 절대적 존재로서의 달이므로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①은 기원의 대상이며, ②은 기원의 대상이 아닌 그리움의 대상인 임금이다.

④ ①은 절대적 존재로서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이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르세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까 두렵구나'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오답피하기

① '머리곰'의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멀리멀리'로 풀이할 수 있다. 화자는 달에게 '멀리멀리 비취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면서 남편의 안녕을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시장에 가 계신가요?'라고 화자가 남편에게 묻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④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라는 화자의 말에는 남편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⑤ 날이 저물어 남편이 집에 오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향가 005

모죽지랑가 _ 독오

본문 020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봄, 죽지랑

01 ② 02 ④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생전에 죽지랑이 보여 준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며 이미 죽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피하기

④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용모에 주름살이 생겼다는 표현을 통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긴 하지만,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통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잠시라도 죽지랑을 다시 만나보길 바라는 마음이 표출된 작품이긴 하지만, 죽지랑과 더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이끌어 낼 수 없다.

2 화자의 정서 파악

㉠는 '아름다웠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셨구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인생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 및 정서가 표출된 작품은 우탁의 '탄로가'이다. 이 작품에서도 자신의 늙음과 이로 인해 따라오는 백발을 가시와 막대로 막고자 했으나 결국 막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봄밤 잠 못 이루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이조년의 작품이다.

② 가을 밤 낚시질을 하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월산대군의 작품이다.

③ 간신히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한 비관 의식과 더불어 나라를 구할 충신 이 나타나길 갈구하는 이색의 작품이다.

⑤ 단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사육신의 작품이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죽지랑 없이 살아야 하는 화자의 심정을 '다복쑥 우거진 마을에 편하게 잘 밤 있으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의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 ② 죽지랑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울면서 시름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지랑이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④ '그리워하는 마음'은 죽지랑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노출된 표현이다.



본문 021쪽

006 찬기파랑가 - 충당사

●시험 출제 포인트 | 자연물, 상징, 지백

01 ④ 02 ④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시상은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시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화자의 태도 파악

이 작품은 기파랑의 고결한 자태와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④도 시적 대상인 '물'의 맑고 그치지 않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임에게 보내는 애뜻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임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고려 왕조의 회고와 무상감이 드러나 있다.

3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서리'는 다른 시어들과 달리 부정적인 외부의 상황인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④ '달'은 광명, 염원을, '나리'는 순수하고 깨끗함을, '지백'은 단단하고 강함을, '쫓아가지'는 지조, 절개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시어들이다.



본문 022쪽

007 제망매가 - 월명사

●시험 출제 포인트 | 죽음, 한 가지, 무상감, 종교적

01 ③ 02 ③ 03 ④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은 누이의 탄생과 죽음을 나뭇잎이 한 가지에 나고 떨어지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쇠락과 쓸쓸함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ㄱ. 대화체는 화자와 청자의 말이 오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은 화자가 혼자 독백할 뿐이다.

ㄴ. '생(삶, 이승)'과 '사(죽음, 저승)'라는 대조적 시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상(죽은 누이)과의 갈등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와 함께 시적 상황에 대한 초월의 정서가 드러날 뿐이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은 '미타찰'이라는 불교의 이상 세계, 극락세계에서 죽은 누이와의 재회, 만남을 기약하며 시상이 마무리되는 반면, <보기>는 이승에서의 내 목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저승에 있는 아우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의 '떨어질 앞'과 <보기>의 '좌르르', '열매가 떨어지면'에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감,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는 반면, 이 작품에는 오히려 슬픔에서 종교적 초월, 극복이라는 정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 ④ 이 작품의 '아아'와 <보기>의 '형님!', '오오냐', '못 들었으리라.'에는 모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⑤ 이 작품에는 대상(누이)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턱이 긴 얼굴' 등에서 대상(아우)의 외양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난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㉔은 죽음의 순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생사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 ② '바람'은 소멸, 죽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른 바람'은 이른 죽음, 즉 요절한 누이를 의미한다.
- ③ '떨어질 앞'은 소멸하는 존재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허무함을 드러낸다.
- ⑤ 도둑은, 즉 종교적 수양을 통해 극락세계에서 죽은 누이를 재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본문 023쪽

008 원왕생가 - 광덕

●시험 출제 포인트 | 기원, 전달자

01 ⑤ 02 ③ 03 ⑤ 04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자연물인 '달'을 청자로 설정하여 달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의미가 점차 확대되는 점층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③ 상징법과 돈호법을 사용하여 달에게 호소하고 있다.
- ④ 미래에 극락 왕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2 창작 의도 파악

이 작품은 광덕이 극락정토(서방 정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 지은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가난했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극락정토에 이르는 것이다.
- ② 배경 설화에는 광덕이 엄장보다 극락정토를 먼저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④ 배경 설화에는 죽음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⑤ 누가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충고를 위해 지은 것은 아니다.

3 세부 내용의 이해

[A]에는 화자의 소원 '원왕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달에게 서방 정토까지 가서 무량수불에 사귀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 ②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극락세계인 '서방' 세계가 나타나 있다.
- ③ 무량수불은 절대적 존재인 부처님으로서 왕생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원을 들어줄 존재이다.
- ④ 달님을 의인화하여 소원을 부탁하고 있다.

4 시어의 의미 비교

㉠은 화자의 소망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자 서방 정토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소망을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은 남편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별이나 나비'는 축구를 엿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등용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에 해당한다. 화자의 경쟁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축구화'라는 자연물로 비유되고 있는데, 축구화가 피어난 장소가 '적막한 거친 밭'이므로 이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 ② '축구화'를 화자로 볼 때, '변성한 꽃'은 <보기>와 관련지어 화자의 위숙한 학문적 경지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를 등용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화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는 <보기>와 관련지어 볼 때 화자의 신분 때문에 화자를 차별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A에서는 '축구화, 장맛비, 보리바람' 등이, B에서는 '가을바람'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을 뿐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이 작품에서는 '부끄럽고'나 '한스러워라'라는 표현을 통해, <보기>에서는 '괴로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토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④ 이 작품의 경우 전 4구에서는 정서의 표출이 자제되고 있는 반면 적막한 거친 밭에 피어난 축구화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후 4구에서 정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경우 '가을바람'이나 '밤비'가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고 있다.

본문 025쪽



한시 010 송인 _ 정지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풀빛, 물, 눈물, 과장

01 ② 02 ① 03 ①



한시 009 축구화 _ 최치원

● 시험 출제 포인트 | 축구화, 나비, 말

01 ④ 02 ④ 03 ①

본문 024쪽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현재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과 탄식이 나타날 뿐 과거의 삶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거친 밭에 피어난 축구화를 통해 화자의 삶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그 누가 보아주리'를 통해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수레나 말 탄 사람'과 '별이나 나비'가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구로 제시되고 있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비', '풀빛', '대동강 물', '물결' 등 자연물을 통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화자가 이 자연물들과 친화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비 갠 봄날의 싱그러운 모습과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③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물을 보탠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강조하고 있다.
- ④, ⑤ '비'와 '풀빛'의 청량하고 맑은 모습이 화자의 애상감을 자아내고 있다.

2 시어의 의미 및 기능 파악

‘대동강 물’은 화자의 슬픔으로 인해 마르지 않는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강조하는 소재일 뿐,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대상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② 푸른 ‘풀빛’은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이미지로 애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 ③ ‘슬픈 노래’는 화자가 입과의 이별 후 취한 행동이므로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 ④ ‘남포’는 화자가 입을 떠나보낸 공간적 배경이다.
- ⑤ 화자는 ‘눈물’을 통해 애상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에서는 ‘풀빛’, ‘대동강 물’을 통해, 〈보기〉에서는 ‘비’, ‘서러운 풀빛’을 통해 화자의 애상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이 작품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 실제 처해 있다.
- ③ 이 작품과 〈보기〉에는 모두 이별로 인한 한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 ④ 〈보기〉에는 화자의 한스러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이러한 정서를 극복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보기〉에서 화자는 애상감을 보일 뿐, 다른 정서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 026쪽

011 부벽루 _ 이색

●시험 출제 포인트 | 대비, 텅 빈 성, 영원함, 무상함

01 ③ 02 ⑤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화자는 부벽루 주변의 쓸쓸한 자연 풍경과 퇴락해 버린 고구려의 유적지를 보며 인간 역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자연을 즐기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화자의 정서 파악

이 작품의 화자는 영화롭던 왕조는 사라지고 텅 빈 성만 남은 고구려의 유적지에서 변함없는 자연의 영원함을 보면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에 애상감과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고려 왕조 멸망에 대한 애상감과 한탄을 드러내고 있는 ⑤이다.

오답피하기

- ① 부모님이 돌아가서 효를 다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다.
- ②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천손은 어디 있는가?’라는 화자의 탄식은 천손(동명왕)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쇠약해진 국운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문 027쪽

012 자술 _ 이옥봉

●시험 출제 포인트 | 이별, 모래, 그리움

01 ④ 02 ⑤ 03 ④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ㄴ: 꿈속 낮의 발걸음으로 인해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ㄷ: 구체적인 청자로 사랑하는 임을 설정하여 그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ㄱ: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 ㄷ: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작품의 구조 파악

‘사창’은 여성의 방의 창을 가리키는 말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존재로는 볼 수 없다. ‘돌길’ 역시 가정적 상황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존재로는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A에서는 달 비친 사창에서 임을 생각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B에서는 꿈속 낮에게 자취를 남기게 하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저의 한이 많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임을 그리워만 할 뿐 임을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B에서는 꿈속에서 임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소원은 B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④ 요사이 안부를 묻는 것에서 화자와 임이 격리된 시간이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은 화자가 사창에서 바라보는 달로, 화자는 달을 보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즉 ㉠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자연물로 볼 수 있는 반면, ㉡은 화자가 자신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비는 대상이다.



본문 028쪽

013 갈역잡영 제9수 _ 김창흠

●시험 출제 포인트 | 찻그릇, 사립문, 자연

01 ⑤ 02 ③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1구에 제시된 소재는 ‘술병과 찻그릇’이고 3구에 제시된 소재는 ‘사립문’이다. 이 소재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모두 긍정적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술병과 찻그릇’을 탁자 위에 늘어놓는 구체적 행위가 그려지고 있다.

- ② 1구의 행위를 마음 따라 살아가는 행위로 보고, 여기에 하늘의 진리, 즉 '천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사립문'이라는 시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운치 없는 세속 사람'이 제시되고 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보기〉의 경우 1~3구까지는 경치에 대한 묘사가, 4구에서는 정서의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경 후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보기〉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숲속에서의 삶은 너무 즐겁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속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 작품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소리 나는 사립문을 보고 세속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물과 함께 사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역시 '구름'과 '새'로 대표되는 자연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표출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어찌 숲속의 즐거움 있지 않으리'라는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 작품의 '마음 따라 살아가니'와 〈보기〉의 '숲속의 즐거움'은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시어의 기능 파악

'술병과 찻그릇'은 술과 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이다. 술과 차를 마시는 것은 풍류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 029쪽

한시 014 보리타작 _ 정약용

● 시험 출제 포인트 | 관찰, 후정, 건강한, 자유로운, 벼슬길

01 ④ 02 ① 03 ④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1행에서 막걸리를 묘사할 때 '젓빛처럼'이라고 하여 직유법을(ㄱ), 2행에서 보리타작을 묘사할 때 '높기가 한 자'라고 하여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ㄴ). 또,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ㄷ).

오답피하기

ㄹ.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마음속에서 느낀 점을 표현하고 있으나, 역설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수확하는 농민의 모습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장면이다. 따라서 독창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② '막걸리', '도리깨'와 같은 말은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조선

의 어휘이다. 이것을 한시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③ 보리타작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의 한시와는 다른 조선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옹헤야'는 한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우리말의 여음구를 한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⑤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은 화자가 직접 경험한 조선의 농촌이다.

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Ⅱ에서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즐겁기 짝이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힘겨운 노동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신적 여유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의 방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Ⅱ~Ⅲ은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한 선경(先景)에 해당하며, Ⅳ~Ⅴ는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후정(後情)에 해당한다.
- ③ Ⅳ의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라는 구절은 보리타작을 할 때 농민들이 노동요를 부르며 타작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 ⑤ Ⅴ에서는 농민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신은 오직 벼슬을 하기 위해 해매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다.



본문 030쪽

한시 015 탐진촌요 _ 정약용

● 시험 출제 포인트 | 세곡선, 황두, 도치법

01 ⑤ 02 ②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새로 짜낸 무명'을 '눈결'에 비유하여 무명에 대한 농민의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대구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② 대상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세곡선'은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신고 서울로 올라가는 배이므로, 이것이 유량결식하는 농민들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이방'과 '황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③ '황두'가 '이방'에게 줄 돈이라고 백성들의 '무명'을 빼앗아 가는 모습을 통해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3월 중순은 보릿고개라 불릴 정도로 백성들에겐 살기 힘든 시절인데, 이때 '세곡선'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누전'은 토지 대장 기록에서 빠진 땅으로 이 '누전'에서조차 세금을 매

기는 것은 부조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이나 <보기>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에서는 수탈의 주체로 '황두'가 제시된 반면, <보기>에서는 '참새'가 제시되고 있는데, '참새'는 탐관오리를 비유한 자연물이다.
- ② '무명'과 '벼'는 모두 농민들이 애써 거둔 농작물로, 관리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재물이므로 서로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③ 이 작품의 '황두'와 <보기>의 '참새'는 모두 백성들을 수탈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본문 031쪽

한시

016

탐진어가 1 _ 정약용

●시험 출제 포인트 | 뱀장어, 한자어, 마파람

01 ④ 02 ⑤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다.
- ② '일렁일렁', '살랑'과 같은 부사어를 활용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봄물'을 통해 계절적 배경으로 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봄의 생동감이 작품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계당포'라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토속적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를 통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평민들의 삶에 깊숙이 녹아 들어간 작품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 역시 고기잡이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어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사대부의 관념 속 이상향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② 어부들의 건강한 삶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어부들의 궁핍한 삶은 이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 시구의 의미 이해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의탁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3구와 4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② 3구에서는 출항, 4구에서는 귀항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③ '높새바람'을 '高鳥風'로 '마파람'을 '馬兒風'로 표기하고 있다.

④ 마파람이 불면 이에 맞서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한시

017

고시 7 _ 정약용

●시험 출제 포인트 | 뿌리, 백성, 풍자

01 ④ 02 ③ 03 ③

본문 032쪽

1 작품의 특징 이해

'부평초'와 '연잎'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보는 현실, 즉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이 드러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꺾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 ② 탐관오리들로 인해 꺾박받아 여기저기 떠도는 불쌍한 백성들의 처지를 '부평초'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부정적 현실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독백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바람'이 줄기로 '부평초'를 칭칭 감는 것은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평초'를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는다.

오답피하기

- ①, ② '부평초'와 '제비'는 모두 갈 곳 몰라 여기저기 헤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④ '제비'가 자기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황새'와 '뱀' 때문이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더부살이 신세'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힘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나타낸다.

오답피하기

- ① '온갖 풀'과 '부평초'를 대조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의 서글픔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물 위를 등등 떠돌며 바람에 불려 다니는 '부평초'의 힘든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연잎'이나 '바람'으로 인해 '부평초'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연잎'이나 '바람'은 '부평초'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⑤ '왜 이다지도 몹시 어긋나는가'라고 표현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본문 033쪽

한시

018

절명시 _ 황현

●시험 출제 포인트 | 망국, 지식인, 비장미

01 ④ 02 ① 03 ② 04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 전체에서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나라를 잃은 상황에 대한 고뇌와 절망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 ② 글 이는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어려워하며 망한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라가 망한 부정적 현실이 작품을 창작한 동기가 되고 있다.
- ⑤ '새'와 '짐승', '강산'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조국을 '무궁화 온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시어의 기능 파악

'새'와 '짐승'은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는 문학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현실 세계와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하여 감상한 ②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독자와의 연관성에 입각한 감상이다.
- ③ 작가의 예술관에 입각한 감상이다.
- ④, ⑤ 작품의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감상이다.

4 시구의 의미 파악

이 작품의 화자는 망국의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본문 034쪽

연해

019

월야 _ 두보

●시험 출제 포인트 | 아내, 달밤, 부부

01 ⑤ 02 ③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의 소망은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는 것인데, '어느 때나 휘장에 기대어 / 돌이켜 달빛 받아 눈물 말리리'라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향기로운 안개', '옥 같은 팔', '맑은 달빛'을 통해 후각적, 시각적, 촉각

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족과 헤어져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④ 작품의 제목인 '월야'는 달밤이라는 뜻으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화자에게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헤어진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기〉는 헤어진 두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에서는 '옥 같은 팔'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한 몸같이'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동기', '두 아우'라는 말을 통해 화자와 대상이 형제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아내와 재회하여 서로 만나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지만, 〈보기〉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㉔은 남편을 기다리느라 맑은 달빛을 받으며 팔이 옥같이 차가워진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시구이다.

오답피하기

- ① 달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달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달은 화자와 아내를 이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와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 ③ 남편이 있는 장안을 그리는 아내의 마음을 찡찡한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는 시적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켜 준다.
- ⑤ 아내와 만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재회의 기쁨과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 035쪽

연해

020

춘망 _ 두보

●시험 출제 포인트 | 자연, 머리카락, 새

01 ③ 02 ⑤ 03 ①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3구와 4구에서도 시적 화자의 정서가 노출되고 있으므로 1~4구에서는 경치가, 5~8구에서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1구와 2구에서는 영원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사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 ② 화자는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새의 울음을 들으며 슬퍼하고 있으므로 꽃과 새는 화자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있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참상을 알 수 있게 한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유교적 성격이 강한 두보의 작품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화자의 정서 파악

①에는 흰머리조차 짧아지는 육체적 노쇠에 대한 안타까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이와 유사한 정서가 표출된 작품은 봄바람이 자신의 머리에 불게 하여 하얀 머리를 없애 보려 한다는 ①이다.

오답피하기

- ② 고려 왕조의 몰락을 통해 인생무상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원천석의 작품이다.
- ③ 단종에 대한 굶힐 수 없는 충성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성삼문의 작품이다.
- ④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이개의 작품이다.
- ⑤ 입을 보고 싶어 하는 연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홍랑의 작품이다.



본문 036~037쪽

021 동동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자연물, 세시 풍속, 돌윗꽃, 버려짐

01 ② 02 ③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매 연이 각 달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이나 특별한 공간의 의미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공간의 대립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보론 빗’, ‘저미연 보룻’, ‘반잇 저’는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 ③ 일 년 열두 달의 순서대로 시상을 전개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④ 매 연에 입을 사모하는 마음과 입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 입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 ⑤ 4월이면 아니 잊고 오는 피꼬리새와 오지 않는 입으로 인한 화자의 상황이 대비되고 있다.

2 시어의 의미 파악

오월의 ‘약’은 입에 바치는 것이라 입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월의 ‘약’은 일반적인 세시 풍속으로 먹는 노란 국화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입을 향한 사랑이나 헌신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등스불’은 입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비유한다.
- ② ‘긋고리새’는 4월이면 잊지 않고 오는 피꼬리새로 돌아오지 않는 입과 대비된다.
- ④ ‘보론 빗’, ‘저미연 보룻’은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 ⑤ ‘반잇 저’는 입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신세가 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이 작품은 입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며, 입이 없는 상황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각 달의 세시 풍속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가 행사나 생산 활동을 권면하는 교훈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달거리 계통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①은 본래의 작품이 기록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038~039쪽

022 정석가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없다, 궁중, 연정

01 ④ 02 ② 03 ⑤ 04 ③

1 작품의 운율 파악

이 작품에서 문장 어순의 변화, 즉 도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도치는 의미 강조의 효과는 있지만 운율 형성의 기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3음보만 호흡이 세 번 끊기는 것을 말한다. ‘므쇠로 / 한쇼를 / 디여다 가’, ‘구스리 / 바희에 / 디신들’ 등에서 3음보의 반복이 나타난다.
- ② 조흥구란 별 의미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을 의미한다. ‘나논’에서 조흥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유덕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등 특정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 ⑤ ‘작작기(바삭바삭)’ 등에서 음성 상징어가 나타난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설의법은 형식상 의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으로, 이 작품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에서만 나타나 있다.
- ③ 이 작품에서 사랑의 믿음을 끊어지지 않는 끈에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④ 반어법은 실제 화자의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정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사용하고 있다.
- ⑤ 〈보기〉의 ‘진달래꽃(화자의 분신)’과 이 작품의 ‘꽃, 소’ 등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민중의 관심사와 국가의 관심사가 함께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는 민중의 관심사로 볼 수 있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은 국가에서 요구했던 바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상류 계층의 문화를 민간에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것을 상류 계층이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③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내용상의 문제로, 표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④ 과거와 현재에 이어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4 시어의 의미 파악

㉔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임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작품의 제목인 '정석가'의 '정석'은 '정'과 '돌'의 의미하는데, 정과 돌이 여기에 계신다는 표현은 사물을 의인화한 표현에 해당한다.
 ② 바삭바삭한 모래로 된 벼랑은 식물이 살기에 불가능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이 깨어질 위기에 닥치게 되는데, 이는 화자와 임파의 사랑에 닥친 위기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본문 040~041쪽

023

청산별곡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울림소리, 바다, 고통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후렴구에 해당하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유성음인 'ㅇ'과 '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② 갈래가 고려 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고려 시대 평민층의 정서와 생활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③ '살어리 살어리랏다'를 비롯하여 많은 구절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고려 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는 방식으로 전승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채록되어 악보집에 수록되었다.

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작품을 지배하는 시적 정조는 슬픔과 절망, 탄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품의 후렴구는 이와 상반되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악률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는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에 해당한다.
 ③ 'ㄴ'과 'ㅇ'이라는 특정한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후렴구이다.

3 화자의 태도 파악

이 작품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으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청산과 바다를 찾아 떠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청산'이라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강호가도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다.
 ③ 화자의 현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삶의 모습이 안빈낙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청산'과 '바다'로 도피하려고 하고 있다.

4 시어의 의미 비교

이 작품의 '청산'은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이고, 〈보기〉의 '청산'은 '내 뜻'과 같은 것으로서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닌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오답피하기

- ① ㉔은 단순히 변함없는 자연이라고 할 수 없으며, ㉔은 그리움의 공간이 아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② ㉔은 그리움 임과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④ ㉔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공간이다. ㉔은 화자의 이상향이 아닌 화자 자신이다.
 ⑤ ㉔은 현실과 대조적인 공간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5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화자는 희망을 잃은 유랑민 신세이다. 이런 신세의 화자에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③ 유랑민의 신분에서 화자가 출세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풍류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지만 희망을 잃은 유랑민의 상황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시구의 의미 파악

이 작품의 화자는 미워할 사람과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운명)에 맞아서 울고 있다. 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절대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우는 새'는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며,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속세에서 '갈던 밭'을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④ '예정지'는 '외딴 부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⑤ '내가 어찌할까'라는 표현이지만 문맥적 의미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문 042쪽

고려 개요 024 서경별곡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희생, 무정함

01 ⑤ 02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노래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하고 있다.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연희의 형식에 맞게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에서는 '임이 사랑만 해 주신다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천년을 외로이 지낸들', '강을 건넌다면'으로 상황을 가정한다. <보기>에서는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나무라면'으로 상황을 가정한다.



본문 043쪽

고려 개요 025 만전춘별사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과장법, 사랑

01 ⑤ 02 ⑤ 03 ⑤

1 작품의 내용 이해

이 작품의 화자는 5,6연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까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임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1연에서 화자는 얼어 죽을망정 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임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 2연에서 화자는 임이 없어 잠 못 드는 외로운 밤을 노래하고 있다.
- 3연에서 화자는 임과 닮이라도 함께하자며 맹세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4연에서 화자는 임을 오리에, '소'는 다른 여인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는 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보기>는 '대나무'를 통해 지조와 절개라는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임이 없는 외로움을 노래할 뿐이다.

오답피하기

- 이 작품(경경 / 고침상에 / 어느 주미 / 오리오)과 <보기>(눈 맞아 / 휘여진 대를 / 뉘라서 / 굶다툰고) 모두 4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어느 주미 오리오'와 <보기>의 '뉘라서 굶다툰고'에서 알 수 있듯이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이 작품의 2연은 반복되는 구절을 제외하면 <보기>와 같이 3장으로 나

눌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복숭아꽃이 피는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눈이 쌓인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하소 님하'는 '하소서 님이시여'라는 의미로 화자의 감정을 분출하는 어조를 사용하여 영원히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오늬밤'은 쓸쓸한 밤이 아니라 임과 함께 있어 동사(凍死)도 두렵지 않은 불같이 뜨거운 밤이다.
- '도화'는 임이 없어 시름이 많은 '나'와는 대조적인 시름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 '비오리'는 화자와 처지가 같은 대상이 아니라 화자를 쉽게 떠나 버리는 임을 상징한다.
- '남산'은 화자와 임과의 아득한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임과 화자가 다시 만나는 사랑의 공간이다.



본문 044쪽

고려 개요 026 정과정 _ 정서

●시험 출제 포인트 | 원망, 접동새, 절대적

01 ③ 02 ⑤ 03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임에 의해 버림받은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하으'라는 여음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니미 나를 흠마 니즈시니잇가.'에서 의문형 어미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청자를 '임'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2 작품의 내용 이해

⑮는 닮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표출된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사랑을 드러낸 부분이다. 고난 극복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구절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임을 그리워하는 것은 임과 화자가 함께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기 때문에 임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접동새는 화자의 슬픔과 한을 투영시킨 자연물이다.
- 화자에 대한 말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하소연에 해당한다.
-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절대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에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로 '버기더시니'가 직설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로 ‘산’, ‘구름’이 비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에서는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옷’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런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보기〉에서는 ‘늑음’을 통해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에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작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 〈보기〉의 경우에도 문제의 원인을 산과 구름이 의미하는 간신배로 귀결시키고 있다.



본문 045쪽

고려 가요

027

가시리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이별, 엇디, 임

01 ② 02 ④ 03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위 증글가 太平盛代’는 후렴구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렴구가 작품의 분위기와 조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③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화자의 속마음은 입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잡고 싶지만 입을 잡지 못하고 체념하는 이유가 임이 자신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서 오지 않을까 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작품의 구조 이해

임이 떠나는 상황에서 입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3연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부탁과 당부의 어조도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시적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②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를 통해 임과의 이별이 화자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 ③ A와 B에서는 ‘가리시이고’라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부각되고 있다.
- ⑤ 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고 입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순종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작품의 특징 파악

작품을 통해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희망에 찬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④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지 못하고 임이 서운해할까 봐 붙잡지 못하는 모습은 화자가 순종적인 여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경가체가

028

한림별곡 _ 한림의 제유들

●시험 출제 포인트 | 사물, 후렴구

01 ③ 02 ⑤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한림 제유들이 지은 노래이다. 한림 제유는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보던 한림원의 여러 선비’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그러한 선비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한림 제유들의 노래이다. 한림 제유는 ‘왕명을 받들어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한림원의 여러 선비’를 가리킨다. 따라서 공동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3·3·4조의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총 8장의 연장체(분연체)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금학사(琴學士)의 옥순문생(玉荀文生)’, ‘삭옥섬섬(削玉纖纖) 쌍수(雙手)·스길헤’ 등의 구절이 반복되어 있고, ‘스경(景) 그 엇더히니잇고’라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
- ⑤ 제1장에서는 금의에 의해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명문장을 나열하고 이를 찬양함으로써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2 표현상의 특징 적용

⑤에서 양보심과 타인 존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독립심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 의식으로 묶이기 어렵다.

3 시구에 대한 이해

①은 그네를 타는 광경을 드러내며 한림 선비들의 풍류적인 생활 감정을 과시하듯 나타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①은 금학사의 훌륭한 제자들이 과거를 보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그네뛰기를 하는 실제 광경이다.
- ⑤ ‘스경(景) 그 엇더히니잇고’라는 후렴구는 ‘~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라는 뜻으로, ‘굉장합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악장

029

용비어천가 _ 정인지 외

●시험 출제 포인트 | 궁중 음악, 쇠퇴

01 ② 02 ③ 03 ①

1 작품의 특징 파악

이 작품은 악장이다.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였으나,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향유층이 두텁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쇠퇴하였다.

본문 046쪽

본문 047쪽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악장으로, 왕의 행차나 종묘 제향(宗廟祭享) 등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에서 사용되던 음악의 가사이다.
- ③ 제1장에서 조선 창업의 6조를 찬양하고, 제125장에서 후왕에 대해 경천 근민(敬天勤民)할 것을 권계(勸戒)하고 있다.
- ④ 궁중의 공식 행사에서 불리던 것으로 향유층이 폭넓지 못하였다.
- ⑤ 제1장에서 국가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 조선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2 시구에 대한 이해

대상이 한 일(조선 건국)의 정당성은 (가)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일마다 하늘이 내린 복이며, 중국의 옛 성왕들이 한 일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조선 창업의 6조를 '육룡'이라고 비유하였고, (나)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하고 있다.
- ② (가)는 주로 한자어를, (나)는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는 조선의 6조가 조선을 건국한 일이 옛날 중국의 성군이 하신 일과 똑같이 들어맞다고 하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중국 중심의 생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는 조선 건국에 기여한 여섯 왕의 덕과 능력은 천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이는 중국의 고대 성군과 다를 바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적용

한자어든 고유어든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 자체가 이미 훈민정음의 실용성 여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의 한자음이 달랐으며, 이를 우리의 고유한 글자인 훈민정음으로 적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조

030

회고와 충절

본문 048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대조, 인걸, 시적 상황, 멸망

01 ④ 02 ① 03 ③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오백 년 도움지', (나)는 '만월대'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와 (나) 모두 부재하는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변하지 않는 자연과 예전에는 태평연월을 구가했지만 지금은 간 곳이 없는 인걸을 대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 ⑤ (나)는 '목적'을 통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는 그렇지 않다.

2 화자의 정서 파악

(가)와 (나) 모두 고려의 멸망을 한탄하고 있으므로 '고국의 멸망을 한탄

함'을 가리키는 말인 '백수지탄'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 생활의 즐거움과 동경한다.'는 뜻이다.
- ③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몸을 바친다.'는 뜻이다.
- ④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술 정도의 정성과 노력을 들임.'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나이가 들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짐.'을 이르는 말이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나)는 '만월대'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보기>는 '두리기둥, 단청, 옥좌' 등 궁궐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왕조의 몰락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나)에서는 화자를 '객(나그네)'으로 객관화시켜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에는 '나'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보기>의 '어느 팬들 봉황이 울었으랴만'에서 어느 때에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에 대한 정서가 나타난다.
- ④ (나)의 경우 '적양'에서 해가 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쇠락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두 작품 모두 의지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조

031

인생과 서정

본문 04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탄로가, 허무함, 고난

01 ⑤ 02 ② 03 ③

1 주제의 공통점 파악

늪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상 세계와 관련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동경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늪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지만, 과거에 대한 회한의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공간이 이동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늪이라는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백발'이 자신의 뜻을 알고 지름길로 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계절감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삶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
- ④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의 관점에서 '봄철'은 매화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매화의 개화가 애인과의 재회라고 하면, '봄철'은 배경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 ①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관점에서 '봄철'은 젊음을 상징할 수 있다.
② '춘설'은 젊음을 방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지러운 세상살이'로 볼 수 있다.
④ '옛 피던 가지'는 과거의 상황을 의미하므로 과거 애인의 사랑을 받았던 화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춘설이 어지러이 흩날려 매화가 필듯말듯 한다고 하였으므로 춘설은 매화의 개화를 방해하는 존재, 즉 동료로 볼 수 있다.



본문 050쪽

시조 032 절의와 총절 1

● 시험 출제 포인트 | 지조, 절개, 비판, 화자, 백설

01 ③ 02 ④ 03 ②

1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가)는 '고사리'를 활용하여 작은 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강인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낙락장송'을 활용하여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비교'는 두 대상의 정도의 차이를 견주는 것으로 (가)와 (나) 모두 찾아보기 힘들다.
② (가)에서는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불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그 뉘 짜헤 낫드니'에서 설의법이 나타나지만, (나)에서 설의법을 찾아보기 힘들다.
⑤ (가)는 '수양산'이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수양산'과 '수양 대군(세조)'을 동시에 의미하는 중의법이 나타나지만, (나)에서 그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보기〉는 서로 얹혀 자라는 칙덩굴처럼 우리도 서로 화합하여 지내자는 내용이다. 즉, 〈보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인간을 대조적으로 서술하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 먹으며 연명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고 있다.
② 〈보기〉는 서로 화합하여 편안히 백 년을 누리자고 하였으므로 편안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는 신체의 편안함보다 지조와 절개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⑤ (나)는 죽어서도 '낙락장송'이 되어 어두운 정치 현실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백이와 숙제'는 부귀와 명예를 포기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의인(義人)을 의미한다. (가)의 화자가 ㉠을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반정을 일으킨 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먹었던 백이와 숙제와 달리 화자는 수양 대군의 정권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는 강인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수양 대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푸새'는 수양 대군의 땅에서 나는 것으로 (가)의 화자에게 있어 수양 대군의 땅에서 난 풀을 캐 먹는 것은 곧 수양 대군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고사리를 캐 먹는 것마저 비판한 것이다.
④ '낙락장송'은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푸르다고 하여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⑤ 일반적으로 '백설'은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는데, 〈보기〉의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이란 수양 대군이 정권을 잡은 것을 의미한다.



본문 051쪽

시조 033 절의와 총절 2

● 시험 출제 포인트 | 동일시, 이입, 구체적

01 ④ 02 ⑤ 03 ③

1 주제의 공통점 파악

(가)와 (나) 모두 그리워하는 임이 곁에 없어 부채지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에서는 '촉불'이 속 타는 줄 모르나며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가)에서는 '촉불'과 자신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임 게신 곳에 달이 되어 비추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지,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시어의 기능 파악

(가)는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낼 때 단종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이다. 화자는 '촉(燭)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단종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애달픈 심정을 '실술(귀뚜라미)'의 울음을 빌려 표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술(귀뚜라미)'은 화자의 감정 이입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은 기생집, ②는 기생 또는 새로운 여인, ③은 화자(여성)가 거처하는 방, ④는 자연물로서의 매화를 의미한다.

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마음'을 배어 낼 수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②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④ 시간은 달이 보이는 밤중이며,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 ⑤ '달'은 화자의 마음이 구체화된 대상이지 의인화되지는 않았다.



시조

034

자연과 풍류 1

본문 052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명구 승지, 물아일체, 병풍

01 ① 02 ④ 03 ②

1 주제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백구'에게 말을 걸어 '명구 승지'에서 놀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나)에서는 초려 삼간에서 '달', '청풍' 등의 자연물과 함께 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가)와 (나)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청풍, 달 등 일상적 소재가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청풍', '달' 등을 사람처럼 방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드러나지만,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날다려'는 '날따라'가 아니라, '나에게'라는 의미이다.

오답피하기

- ① ㉔: 경관이 빼어난 곳
- ③ ㉔: 계획하여
- ④ ㉔: 맡겨 두고
- ⑤ ㉔: 들일 곳이



시조

035

자연과 풍류 2

본문 053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인공, 안빈낙도, 이상향

01 ① 02 ④ 03 ③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와 (나) 모두 '아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독백체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② (가)에서는 인공의 세계를 의미하는 '짚방석'과 '술불',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는 '낙엽'과 '달'이 대조되어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박주산채'는 소박한 생활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이다.
- ④ (나)는 무릉도원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물아일체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도화', '산영' 등이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화자의 태도 파악

④는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사는 화자가 자연 속 풍류 외에 벼슬이나 정치 등의 세상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연에서 풍월(風月)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자연 속 흥취는 높은 벼슬보다도 더 낫다며 자연 속 흥취를 예찬하고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화자는 두류산 양단수가 명승지라는 것을 과거에 직접 와서 봤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현재 위치한 공간에 처음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술불'이라는 인공물보다 '달'이라는 자연물을 더 선호하는 화자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변변치 않은 술과 산나물이라는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꽃잎이 떠가고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두류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본문 054쪽

시조

036

사랑과 이별 1

●시험 출제 포인트 | 변화무쌍, 대조, 구체적 사물

01 ②

02 ③

03 ②

1 작품의 특징 이해

(가)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청산'에 비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입의 마음이 변한 것을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녹수'로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푸른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을 뿐, 촉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순종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 ⑤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비유했을 뿐, 감정 이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시어의 의미 비교

(가)에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비유하는 '청산'과 달리 '녹수'는 변심하고 떠나가는 입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②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⑤ 변함없는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3 시어의 기능 파악

〈보기〉의 '추풍낙엽'은 화자의 그리움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나)의 화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입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나)에서 화자의 그리움을 유발하는 소재는 '가나긴 밤'이 적절하다.



본문 055쪽

시조

037

사랑과 이별 2

●시험 출제 포인트 | 울음소리, 그림자

01 ②

02 ⑤

03 ④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현재 화자의 곁에 없는 입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는 입을 기다리다 입이 자신을 만나러 온 줄 착각한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어의 의미 비교

(가)의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단장춘심'이라 표현하며 '네' 즉 '자귀(두견새)'도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귀'가 감정 이입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화자는 '실술'의 낮이 되어 입의 방에 가서 입을 보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실술'은 화자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나)에서 입을 기다리던 화자는 창문 밖에 어른어른하는 그림자가 보이자, 입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으나 입이 아닌 구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기〉의 화자도 '주추리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버선 발로 뛰 어갔다가 입이 아닌 것을 깨닫고 민망해 하고 있다.



본문 056쪽

시조

038

효도와 절개

●시험 출제 포인트 | 조홍감, 부모님, 오상고절(傲霜孤節)

01 ③

02 ②

03 ④

1 작품 간의 차이점 파악

(가)는 '회굴 고사'라는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국화가 지닌 지조, 절개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명령적 어조는 〈보기〉의 초장에만 나타나지,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가)는 고사를 인용하고 효심을 강조하는 데서 사대부로서의 면모가, 〈보기〉는 백성을 교화하려는 데서 화자의 사대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두 작품 모두 효도와 관계된 내용이다.
- ③ 〈보기〉는 미래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④ (가)는 교훈적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애상적 감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훈을 느끼게 한다.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 ⑤ (가)는 조홍감을 본 구체적 상황을 통해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반면, 〈보기〉는 구체적 상황의 제시 없이 효도를 권장하고 있다.

3 화자의 정서 파악

①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한자 성어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인 '풍수지탄(風樹之嘆)'이다.

오답피하기

- ①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의미한다.
- ② 갈림길에서 양을 잃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에 있어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 ③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을 의미한다.
- ⑤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조

039

삶의 애환과 해학

●시험 출제 포인트 | 동병상련, 창, 간절함

01 ③ 02 ⑤ 03 ⑤ 04 ①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을 노래를 통해 풀고자 하는 소망을, (나)에서는 가슴에 창을 내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와 (나)에 대상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현재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뿐,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가)의 시름과 (나)의 답답함이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슴에 창을 내겠다는 (나)의 발상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에 해당하지만, (가)에는 그러한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작품의 특징 이해

초장에서는 '창 내고자'의 반복이, 중장에서는 '장지'와 '돌쩌귀'의 반복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어의 반복은 답답한 심정을 열어 보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 ①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발상을 한 것일 뿐, '창' 등의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열거적 표현이 나타나 있을 뿐, 대조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이 작품에서 관조적 어조는 엿보이지 않으며, 화자가 꿈꾸는 이상에 대한 표현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감각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부정적 태도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나)는 일상생활의 사물을 소재로 취하고 구체적인 생활 용어를 그대로 시어로 쓰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실시조는 조선 전기의 시조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보이며, 소재의 측면에서도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까지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①은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아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미지, 화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② 화자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시름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노래를 통해 시름을 해소했을 것이라며 노래를 만든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보고 있다.
- ③ 화자의 마음을 꼭 막혀 있는 방이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 방에 창을 내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다.
- ④ '장지', '돌쩌귀' 등은 창을 내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해당한다.

⑤ 화자는 마음에 창을 내어 이를 여닫는 것으로 삶의 고달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시조

040

사랑과 이별 3

●시험 출제 포인트 | 내 마음, 장성령

01 ④ 02 ⑤ 03 ⑤ 04 ②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의 '엇그제 님 여환', (나)의 '그 너머 님이 왔다 후면'의 표현을 통해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사랑하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와 (나) 모두 자연을 소재로 사랑을 전개하고 있지만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화 형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나)는 임이 온다면 장성령 고개를 쉬지 않고 넘겠다고 하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절망적 심정을 드러낼 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작품의 내용 파악

중장에서 '그 너머 님이 왔다 후면'이라고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고개를 넘어 단숨에 임을 만나러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절망적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까투리'는 매에게 쫓기는 상황, '도사공'은 바다 가운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화자는 임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중장에서 시각적 이미지 등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바다 가운데에서 위험에 처한 '도사공'의 막막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엇그제 님 여환 내 안하야 엇다가 ㄱ을후리오'라며 자신의 상황이 가장 부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초장과 중장에서 '~쉬여 님고 고기'라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장성령 고개의 험준함을 강조하고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화자가 고개를 쉬지 않고 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임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지, 바람과 구름보다 자신의 능력이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산에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은 더욱 나쁜 상황을 암시하므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② '도사공'은 바다 위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거기에 수직까지 만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인물이다.
- ③ '까투리', '도사공'의 마음과 임을 여윈 화자 자신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장성령 고개의 험준함을 강조하기 위해 봉우리를 쉬어 넘는 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4 시어의 의미 파악

바람도 구름도 쉬어 넘을 만큼 매우 험준한 ‘장성령 고개’는 공간적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 059쪽

시조 041 사랑과 이별 4

●시험 출제 포인트 | 고운 임, 연쇄법, 해학적

01 ⑤ 02 ③ 03 ⑤ 04 ②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와 (나)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사실시조로, 구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해학적으로 드러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가)는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하여 ‘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반면, (나)에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개 때문에 ‘고운 남’이 돌아가 버린 상황, (나)는 ‘너’가 오지 않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고운 남’, (나)에서는 ‘너’의 부재가 작품 창작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사실시조로, 평시조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가)는 개에 대한 원망을, (나)는 ‘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작품의 특징 이해

(나)의 중장의 내용은 화자가 오지 않는 ‘너’의 상황을 겹겹이 장애물에 둘러싸인 것에 빗대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너’가 실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못 오던가’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의 중장에서는 연쇄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 연쇄법이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 ④ ‘날 보라 올 홀리 업스랴’는 ‘날 보러 올 하루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말로,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⑤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 ‘날 보라 올 홀리 업스랴’에서 ‘너’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서운함을 엿볼 수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①에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개 때문이라고 생각해 개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가 가장 관계 깊은 속담이다.

오답피하기

- ①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할 위태로운 곳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고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 ③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 ④ ‘개가 처음에는 겨를 훔쳐 먹다가 재미를 붙이게 되어 나중에는 쌀을 먹는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조금 나쁘던 것이 차차 더 크게 나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4 시어의 의미 파악

(가)에서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가 ‘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개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임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사공’이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공’이 가장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문 060쪽

시조 042 생활

●시험 출제 포인트 | 일과, 궁핍한

01 ⑤ 02 ② 03 ③

1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가)에서 현실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는 주체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농부이다. 또한 (나)에서는 농부의 고달픈 삶이 드러날 뿐, 자부심을 보이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긴 소리 저른 소리’, (나)는 ‘이라이라’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가)에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농부의 모습이, (나)에는 궁핍한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해 보리를 심는 농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에는 농사를 짓고 점심을 먹은 후 졸다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농부의 행동이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화자가 아는 곡식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 ④ (가)는 화자의 독백을 중심으로, (나)는 화자와 농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화자의 태도 파악

(가)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소박하고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② 역시 시조 한 수 읊조리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즐기는 소박한 삶의 좋은 뜻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같은 공간의 고기를 탐하는 ‘해오라기’를 통해 당쟁을 일삼는 조정의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당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③ 변하지 않는 ‘청산’을 화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녹수’를 임

- 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국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 ⑤ 변함없이 영원히 학문 수양에 힘쓰겠다는 뜻을 노래하고 있다.

3 작품의 공통점 파악

(나)의 '농부'는 양식하기에 가장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보리를 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부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나)는 곡식이 부족하여 궁핍한 농부의 현실을, <보기>는 서로 속고 속이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061쪽

043 풍자와 해학 1

● 시험 출제 포인트 | 두터비, 한자어, 현학적

01 ① 02 ② 03 ④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의식이 드러나 있을 뿐, 역설적 상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② (가)는 인간 세상을 두꺼비, 파리 등의 동물 세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우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나)는 게짓 장수와 게짓 장수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나)의 중장에서 게짓 장수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지배층이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을 풍자하고 있으며, (나)는 때에 맞지 않게 현학적인 말을 사용하는 게짓 장수의 허위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2 시어의 의미 파악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우의적 표현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포리'는 지배층에게 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가리키고, '두터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 양반, 부패한 관리 등을 가리키며, '백송골'은 두터비를 능가하는 존재로서 중앙의 관리나 외세를 가리킨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게짓 장수는 어려운 한자어를 장황하게 나열하여 게짓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배려하였다기보다는 어려운 한자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 하는 현학적 태도로, 화자는 이를 나무라면서 허위와 허세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파리를 괴롭히던 두꺼비는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인 백송골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깜짝 놀라고 있다.
- ② 백송골 때문에 놀라 두엄 위에 넘어졌던 두꺼비가 멍들지 않은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 ③ 화자는 게짓 장수가 동난것 사라고 하는 외침에 관심을 보이며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고 있다.

- ⑤ 게짓 장수가 한자어를 늘어놓으며 게짓을 설명하자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게짓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 062쪽

044 풍자와 해학 2

● 시험 출제 포인트 | 매서움, 식누님, 며느리, 슈통니

01 ① 02 ②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시집 식구, (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물갯'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는 시집살이, (나)는 해충에게 물리는 상황이라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유교적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자식이고 남편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에 등장하는 남편도 며느리의 삶에 힘을 주는 남편이 아닌 미련한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을 일상적 소재에 비유하여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언어유희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시집 식구들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는 '시집'과 '개집'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와 시집 식구들을 '~새'라고 비유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에 비해 <보기>는 동서, 시아주머니, 남편 등 집안 식구들을 더 많이 등장시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시적 대상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보기>는 며느리가 화자가 되어 신세를 하소연하고 있다.



본문 063쪽

045 강호사시가 _ 맹사성

● 시험 출제 포인트 | 생활, 임금, 사대부

01 ④ 02 ④ 03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제4수에서 모순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으며, 소박한 차림새로 안분지족하

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오답피하기

- ① 제1수에서는 시냇가에서 쏘가리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며 흥취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바람에 인격을 부여하여 신의 있는 강 물결을 보낸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살찐 고기를 통해 가을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부각하며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초장에서 '강호에~이 드니', 종장에서 '이 몸이~하움도 역군은이섯다'라는 특정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서로 다른 네 수에 통일감을 주고 있다.

2 화자의 태도 파악

이 작품에서는 자연에서의 풍류, 임금의 은혜와 그에 대한 충성심이 나타나 있다. ④는 봄밤의 심란한 애상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②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를 사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 달을 벗 삼아 사는 한정(閑情)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3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은 겨울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강호(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에게 있어 감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은 지조 있는 충신들(낙락장승)을 쓰러뜨린 부정적인 상황, 즉 수양 대군의 학살(계유정난)을 상징한다.

오답피하기

- ① 두 작품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이 작품의 경우 속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보기> 역시 속세와 자연의 괴리라는 문제를 다루기보다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 ④ ㉠이 아니라 ㉡이 부정적 상황을 상징한다.
- ⑤ ㉡이 아니라 ㉠이 풍류적인 삶을 드러낸다.



시조

046 도산십이곡 _ 이항

본문 064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자연, 학문 수양

01 ③ 02 ④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화자는 세상에 나가 벼슬살이를 하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제10곡에서 다시는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벼슬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제1, 2곡에 나타나 있다.

- ② 제11곡에 나타나 있다.

- ④ 제10, 11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곡에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제2곡에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의 내용을 보면 국속(國俗), 즉 우리 국어가 노래를 부르기에 적절한 언어이며, 노래를 부르면 비루한 마음이 씻기고 서로 마음이 통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작품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한시가 아닌 우리말의 시조로 창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보기>의 '바위'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원성을 지닌 소재이다. 이와 같은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 '유수(流水)'이다.

오답피하기

- ① 시골에 묻혀 사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②, ③ 각각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로 자연을 의미한다.
- ④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시조

047

훈민가 _ 정철

본문 065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유교적, 한자어

01 ③ 02 ④ 03 ②

1 작품의 내용 이해

우애와 효, 상부상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배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제11수의 내용과 관련된다. 어려움을 말하면 도와주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2수의 내용과 관련된다. 형제간에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④ 제13수의 내용과 관련된다. 내 눈을 다 매고 다른 사람의 눈까지 매어 주겠다는 부분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4수의 내용과 관련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하며, 돌아가시면 애태위도 소용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에 화자와 청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의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제2수의 '형아 이야기'에서 돈호법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4수의 '엇디허리'에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3수의 '가자소리', '보자소리'를 통해 청유형 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1수에서 '어와 저 ~야, ~없이 어찌할꼬'를 반복하여 대구를 이루고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머흔 일 다 일러스라 돌보고자 하노라’는 위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 ① 우애와 효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명령형 문장이 아닌 청유형 문장을 사용한 데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내 논다 미어든’에서 ‘내’는 논을 매는 사람, 즉 일반 백성이므로 백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백성의 일상생활 속의 소재를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조 048 매화사 _ 안민영

본문 066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아치고절(雅致孤節), 절개

01 ② 02 ⑤ 03 ④

1 작품의 특징 이해

제2수와 제3수 모두 매화라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매화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매화를 예찬하는 작품이며 풍자적인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이 작품은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바탕으로 매화를 예찬하고 있다.
- ④ 제2수에는 대상에 대한 감탄을 담은 영탄적 표현이 있지만, 제3수에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해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이 작품은 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3수에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에서 글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품위 있는 모습의 매화, 암향이 좋은 매화, 눈 속에서도 피는 매화의 모습을 높이 시는데, 이러한 매화의 아름다움은 이 작품에서 예찬하는 매화의 아름다움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글쓴이는 그러한 조건 없이 내 마음이 매화를 보면 황홀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글쓴이는 ‘매화사’의 작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매화의 미적 조건만을 예찬한 것일 뿐, 자신처럼 조건 없이 좋아지는 매화의 멋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매화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매화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외부적 상황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 ② 이 작품의 작가는 부정적 상황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 매화라는 소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화 자체를 예찬하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매화의 외형적 아름다움만이 아닌 매화가 지닌 절개를 지키는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 ④ 눈 속에 피는 매화의 아름다움과 은은한 매화의 향기도 예찬하고 있다.

므로 매화의 속성 외에 외적인 아름다움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화라는 실제 사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적절하지 않다.

3 시어의 의미 파악

‘황혼월’은 황혼에 뜨는 달로,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대상이다. 달빛에 보이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관용적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약하고 어린 매화가 눈이 올 때 피겠다고 한 약속을 ‘눈 기약’이라고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② ‘암향’은 은은한 향기를 가리키는 말로 매화 향기를 이른다.
- ③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결’이라는 의미로 매화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매화의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표현한 말로, 사군자로서의 매화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시조 049 어부사시사 _ 윤선도

본문 067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여음구, 미련

01 ③ 02 ④ 03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평시조에 여음구를 추가하여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채롭다. 게다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라는 여음구는 노 젓는 소리를 떠올리게 해주어 생동감을 준다. 또한 출항과 귀항에 따라 달라지는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계속 바뀌므로 단조로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시조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 ② 이 작품은 총 40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여음구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는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으며 외치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로서 음성 상징어이다.
- ⑤ ‘ㄴ다’ 등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2 시어의 속성 파악

‘온갖 꽃’은 봄, ‘너름 보람’은 여름, ‘7는 눈’과 ‘설월’은 겨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에 해당한다. 반면 ‘한개, 봉창, 북포, 연식’ 등은 특정한 계절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의 화자는 ‘추사 2’에서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 좋다고 하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보기〉의 중장에 ‘잇은 적이 있으랴, 종장에 ‘내 걱정할 바 아니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화자는 속세를 걱정을 해 온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속세(정계)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을 그만 두려고 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이 작품은 다양한 여음구를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이 〈보기〉보다 두드러진다.
- ② 이 작품은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오히려 〈보기〉에 별다른 풍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실제 고기를 잡는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어부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 ④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서울과 떨어져 있다.



050

만홍 - 윤선도

본문 068~069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분수, 설의적, 임금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②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은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음악성을 잘 살려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산수, 바위, 물' 등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난다.
- ④ '소부, 허유'의 고사를 사용하여 소부, 허유와 같은 자연에 은거하는 선비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산수, 뽕집, 보리밥, 뽕나무, 어리고 하얀 뽕, 먼 뽕, 임천' 등 자연과 관련된 시어와 '그 물론 놈들, 그나쁜 너나쁜 일, 삼공, 만승' 등 속세와 관련한 시어를 대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2 화자의 태도 파악

- '제1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역시 소박한 집에서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병자호란 때 왕이 항복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보고 비분강개하는 가운데, 골짜기에 돌아난 풀을 보며 인간과 달리 시름을 알지 못하는 점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② 가을이 되어 풍요로운 농촌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푸른 산,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도 그치지 말고 학문 정진에 힘을 쏟을 것을 노래하고 있다.

3 시어의 유사성 파악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 음풍농월의 처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자연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먼저 세속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시어들을 살펴보면, ⑤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화자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로 해석할 수 있고, ㉔는 정치권력의 핵심인 삼정승을 의미하며, ㉔는 '강산'과 대조되는 속세

의 만 가지 일을 의미한다.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를 살펴보면, ㉔는 산과 물 사이의 자연 속에 짓는 소박한 집이고, ㉔는 수풀과 물 사이의 한가로운 흥취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세속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⑤, ㉔, ㉔이며,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㉔, ㉔이다.

4 시구에 대한 이해

㉔은 화자가 실제로 그리워하는 대상이 아닌,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부각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리운 임이 찾아오는 반가움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에는 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5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해 〈보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풍류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계절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051

상춘곡 - 정극인

본문 070~07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자연, 대구, 설의

01 ④ 02 ⑤ 03 ④ 04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화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내면적 갈등이 없이 풍류를 즐기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이웃에게 권유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강호가도(자연을 즐기는 삶)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대구법, 직유법, 설의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이용하여 봄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주로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면서 시각적 심상을 이용하고 있다.
- ⑤ 봄을 즐기는 흥취를 노래한 것이므로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내용 전개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상 전개 방식과 공간의 의미 파악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던 작은 초가집에서 점차 자연 속으로 이동하여 마침내는 산꼭대기(봉두)에 있다. 초가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속세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㉔는 화자가 거처하는 곳인 작은 초가집 '수간 모옥'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풍월 주인으로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 ② 수간 모옥에서 나와 ㉔의 공간으로 이동하여서는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수롭다'라고 하면서, 조물주의 신비한 재주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다.
- ③ 들뜬에서 화자는 다시 냇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고 있다.
- ④ 냇가에서 화자는 산꼭대기(봉두)로 이동하여 산 밑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

3 화자의 태도 파악

산 위에 올라가 들관의 풍경을 보면서 겨울의 풍경을 나타내는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쳐난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겨울 풍경의 검은 들판이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풍경을 즐기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이바 나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라는 표현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연 구경을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②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호고 /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라는 구절에서 자신만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술을 마시면서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이고.'라고 하며 자신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는 주변을 걷고 시를 읊으며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표현 방법 파악

- ① '공명도 나도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린다'는 표현은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꺼린다는 표현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객체가 되는 대상을 주체로, 주체가 되는 대상을 객체로 바꾼 주객전도의 표현에 해당한다. <보기>의 마지막 행에서도 객체인 민들레꽃이 주체가 되어 '나'를 객체로서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작고 하찮은 대상도 그리워지는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제시한 구절로 주체는 화자이고 객체는 민들레꽃이다.
- ② 민들레꽃을 통해 위로 받는 화자의 마음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주체로서의 화자가 대상과의 먼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 ④ 사랑과 관련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화자이므로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은 아니다.



본문 072~073쪽

052 면양정가 _ 송순

● 시험 출제 포인트 | 선경 후정, 결사, 존 서리, 황금

01 ② 02 ② 03 ④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나)는 비유법과 열거법을 사용하여 면양정에서 바라본 주변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제월봉'을 '늙은 용'에, '면양정'을 '청학'에, '면양정의 지붕'을 '날개'에 비유하며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면양정에서 본 사계절의 풍경을 '봄(산람) → 여름(녹양) → 가을(존 서리) → 겨울(빙설)'의 순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슬홀소냐', '유여(有餘)하랴' 등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읊프락 파람하락'에서 '－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풍류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2 비유적 의미 파악

'구름 툰 청학'은 제월봉에 자리 잡은 면양정을 가리키므로, 그 청학이 펼친 '두 늑'은 '면양정의 지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이 작품의 화자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거를 없다고 하며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바쁜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인간 세상보다 면양정에서의 생활이 훨씬 한가롭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본문 074~075쪽

053 관동별곡 _ 정철

● 시험 출제 포인트 | 관찰사, 신선, 우리말, 풍류

01 ⑤ 02 ③ 03 ③

1 화자의 태도 파악

(가)에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가 되어 원주로 향하는 화자의 여정과 그 속에서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관동 팔백 리 방면을 맡겼다는 것에서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직분을 알 수 있다.
- ②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직무를 맡긴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자연 속에 병이 깊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연추문 - 경희 남문 - 평구역 - 흑수 - 섬강 - 치악'으로 화자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2 표현상의 특징 파악

㉔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았는데 가서 직접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일 뿐, 두 이미지를 연결하여 감각을 전이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아는다 물으는다'는 의문형의 문장 형식에 해당한다. 화자는 옛날 궁예의 대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까마귀와 까치만 지저귀고 있는 것에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 ② 폭포를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라고 표현한 것은 직유법을 활용한 것이다.
- ④ 화자는 선학을 보고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은 옛 중국 고사의 인물 '임포'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화자의 호방한 풍모를 느낄 수 있다.

⑤ 화자는 '망고대', '혈망봉'을 '너'라고 부르며, 그 기개와 충절에 감탄하고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구만 리 당공에 저기면 놀리'라고 한 것은 높고 넓은 하늘도 잠깐이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풍류를 즐기는 태도와 연결된다.

오답피하기

- ① 서울을 떠나는 신하의 입장에서 '백발'이 많다는 것은 곧 걱정이 많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관련된다.
- ② '음에 이온 풀'은 그늘진 곳에 사는 풀, 다시 말해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은 선정에의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억만 창청을 다 췌게 밍근 후의' 만나자고 한 것은 백성을 살리고 위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⑤ '명월'은 광명을 가진 존재로서 임금과 연결되므로, 임금의 은혜가 아니 비친 데 없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예찬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사 054

속미인곡 _ 정철

본문 076~07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보조적, 대화체, 사계절, 적극적

01 ④ 02 ② 03 ⑤ 04 ②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내용 전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가사는 4음보 연속체의 율격을 지닌다.
- ② '사미인곡'이 한자 성어와 중국의 전고(典故)가 섞인 데 반해, 이 작품은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
- ③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로 그리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주된 이야기를 하는 화자 '을녀'와 보조적인 화자 '갑녀'의 대화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 내용 전개에 흐름 파악

을녀는 임의 사랑을 받다가 왜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과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이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로 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라 감상하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지칭 대상 구분

이 작품에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주된 이야기를 하는 화자 '을녀'와 보조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화자 '갑녀'이다. ⑥는 보조적 화자인 갑녀로, 주된 화자인 을녀의 말을 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③, ④, ⑤, ⑥는 '을녀'로서 주된 이야기를 하는 화자이다.



가사 055

규원가 _ 허난설헌

본문 078~07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외도, 봉건, 실술, 객관적 상관물

01 ③ 02 ④ 03 ③ 04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ㄱ의 화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만 할 뿐 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 〈보기〉의 화자는 '귀뚜라미의 녀이 되어~ 임의 잠을 깨워 볼까 한다'라고 하며 ㄱ의 화자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지 임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ㄱ의 '헐(생각)'과 '상사몽'의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② 두 화자 모두 임과 헤어져 홀로 지내고 있으므로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신세이다.
- ③ ㄱ은 귀뚜라미가 울고 달이 뜨는 시간적 배경, 〈보기〉는 '밤'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ㄱ의 '실술'은 가을밤에 우는 귀뚜라미로 화자 자신의 서글픈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고, 〈보기〉의 '실술'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입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화자가 '실술의 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에서 연꽃이 그려진 휘장(부용장)이 적막하다는 것은 여성 화자가 자신이 거처하는 방에서 외롭게 홀로 쓸쓸히 있다는 뜻이며, 장간이 굵이굵이 끊어진다는 것은 화자의 한스러운 삶과 괴로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구절이 봉건 시대의 여성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이다.
- ②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볼품없게 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 탄식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 ④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과 함께 소식조차 보내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⑤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4 시어의 기능 파악

화자는 서글프고 외로운 심정을 달래기 위해 녹기금을 타지만 녹기금의 소리로 인해 더욱 서글프고 외로워진다. 따라서 녹기금을 통해 화자의 외로

움이 해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본문 080~081쪽

가사

056

누항사 _ 박인로

●시험 출제 포인트 | 경제적, 괴리, 유교, 사실적

01 ⑤

02 ⑤

03 ③

04 ①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며, 표현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모든 것은 운명과 관련 있다고 여기고 타고난 대로 살겠다고 하며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작품에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결심과 그러한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현실적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다. 날이 갈수록 궁핍해지는 생활이 자연을 즐기려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가난하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이웃들의 멸시는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③ 소 주인과 화자의 대화를 통해 이웃 간에도 소를 빌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代價)를 치려야 하는 인간 세태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양반 가사로, 가사의 전통 율격인 3(4)·4조, 4음보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다.

2 감상의 적절성 파악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모습이나, 타고난 대로 살아가겠다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보이는 모습 등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응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화자의 태도 비교

①은 타고난 대로 산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으나, ①은 세속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뿐 운명론적 세계관과는 관련이 없다.

4 시구에 대한 이해

④는 '늙은 좋은 하인과 주인 간의 분수(도리)를 잊었다.'는 뜻으로, 이는 임진왜란 이후 계급 간의 신분 질서가 문란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본문 082~083쪽

가사

057

만언사 _ 안조환

●시험 출제 포인트 | 유배지, 말, 대조, 궁핍한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②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의 힘든 처지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으며,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 뿐이로다' 등에서 삶에 대한 한탄을 느낄 수 있다.

2 시어의 기능 파악

화자는 '봄'을 느끼며 '꽃'을 보고 '고향원상에 이 꽃이 피었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봄을 통해 고향을 느끼며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시구에 대한 이해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삶이 힘든지 나만 그런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인생살이에서 번복과 승침이 많다는 것은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인생살이를 잠시 동안의 꿈에 비유한 것은 인생 백 년이 순간이라는 의미로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과 연결된다.
- ④ 두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팔과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이 많이 힘겨움을 나타낸다.
- ⑤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 옛 인연을 다시 잊고 싶다는 것은 결국 유배에서 풀려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시상 전개 과정 파악

화자는 '간 해'에 장진주 노래하며 술을 마시고 꽃을 보았으나, '올해'에는 슬픔으로 그 꽃을 다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꽃 빛은 같으나, 사람의 처지는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간 해'에 즐겼던 풍류가 '올해'는 슬픔과 탄식으로 바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에서는 '지난 날은 돌이킬 수 없으나 다가올 일은 자신의 뜻대로 쫓을 수 있으니, 내가 할 일을 닦은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소'라고 말하며, 자신의 할 일을 먼저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귀양살이를 임금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지금의 상황을 억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본문 084~085쪽

가사

058

텐동 어미 화전가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인생 역정, 화전놀이, 가사

01 ④

02 ②

03 ⑤

04 ⑤

1 작품의 갈래적 특징 이해

이 작품은 가사로, 초기 가사 작품은 주로 양반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유

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관념적인 작품이 많았다.

2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에서는 텐동 어머니가 개가를 할수록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연만이 제시될 뿐, 계층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화전놀이 묘사 - 텐동 어머니의 인생 - 화전놀이 묘사'와 같은 액자식 구조를 취하면서 화자가 '작품 바깥 - 안 -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③ '저 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등의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청상 과부가 자신의 상황에 서러워하다가 텐동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근심을 덜어낸 후 화전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었다.

3 화자의 태도 파악

텐동 어머니는 개가를 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는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실패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스스로 마음만 흔들리지 않게 하면 모든 일이 예사로 보이고 태평하게 지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② 개가를 되풀이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
- ③ 개가를 되풀이했으나 비극적으로 끝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청춘 과부에게 화전놀이에 왔으면 사연을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

4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에는 텐동 어머니가 자신이 개가를 선택하여 고달픈 삶을 살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반면 <보기>에서는 임파의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화자의 선택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⑤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두 작품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이 작품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③ 이 작품의 화자는 개가를 반복한 인물이므로 유교적 인물로 볼 수 없고, <보기> 역시 도교적 색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보기>의 화자는 임파의 이별 상황에서 절망적 정서를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본문 086쪽

059 강강술래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청유형, 유회적, 극복

01 ② 02 ④ 03 ⑤

1 화자의 태도 비교

이 작품은 유한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에서 좋은 음식도 쉬어버리면 여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켁마쿵쿵 노세'는 함께 놀자는 뜻이므로 주제가 이 작품

과 가장 유사하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뒷소리꾼은 후렴을 반복하고, 앞소리꾼이 자유자재로 사설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리듬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뒷소리꾼에 의해 리듬이 정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노래의 완급도 앞소리꾼의 사설 등에 의해 조절된다.

오답피하기

- ① 뒷소리꾼은 후렴을 반복하므로 '강강술래'를 반복한다.
- ② 앞소리꾼은 사설을 변화시키므로 앞소리꾼에 의해 노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③ 앞소리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설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 ⑤ 후렴이 반복되므로, 후렴에 맞춰 노동을 한다면 반복적인 동작을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시구에 대한 이해

'우리 육신이 있을 적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라는 구절은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세와 관련된다. 또한 유희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의 힘겨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달 떠 온다'가 a, '우리 마을에'가 b라고 놓고 보면 알 수 있다.
- ② '이렇게 모아 잔치하고'에서 집단적인 노래임을 알 수 있다.
- ③ '놀고 놀자 놀아 보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빠는 삭아 진토가 되니'는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본문 087쪽

060 켁마쿵쿵 노세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현재, 낙관적, 후렴구

01 ③ 02 ② 03 ② 04 ④

1 갈래적 기능 파악

이 작품은 노동요로서, 노동의 고달픔을 해소하고 일의 노고를 격려하며 보람과 위로를 줌으로써 한 집단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대구를 이루어 리듬감을 더하고 있고, '낙락장송', '고목'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실 지향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4음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의인화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청유형 어머니를 통해 집단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선창하는 사람에 따라 가사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어 내용의 첨가나 변형이 쉬운 특징이 있다.

3 인물의 태도 파악


이 작품에서는 '낙락장송 고목되면 ~ 여물밖에 더 되는가' 등의 표현에서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민요는 집단적으로 불리며 민족의 정서를 잘 드러낸 노래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노래는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선창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다.
- ② 민요는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된 예술이다.
- ③, ⑤ '노~세~이 노~세~ 캬마쿵쿵 노~세이'는 후렴구에 해당되므로 바꿀 수 없고, 후창 부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대목이다.



민요
061 논매기 노래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농부, 낙천적, 흥, 노동

01 ⑤ 02 ④ 03 ⑤ 04 ③

본문 088쪽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은 노동의 힘겨움을 잊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부른 노동요로, 의식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잘하고 / 자로 하네 / 예히요 / 산이가 / 자로 하네.'의 율격을 통해 3(4)·4조의 음수율과 4음보를 활용한 리듬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농부들은 4행에서 자신들이 농사짓는 땅을 하늘이 내려 주신 비옥한 땅이라며 예찬하고 있다. 이는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농부들의 자긍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민요는 민중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 오랫동안 구비 전승되면서 집단적으로 향유되어 온 노래이다.
- ④ 14행에서 농부들은 논 다섯 마기 분량의 작업량을 반달만큼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힘들고 고된 농사일을 낙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2 후렴구의 기능 파악

이 작품은 선후창요(先後唱謠)의 민요로서 한 사람이 앞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후렴구)를 부르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후렴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3 화자의 정서 파악

①에는 농부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나타나 있다. ⑤에도 어부로서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속에서의 한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임에 대한 일편단심이 드러나 있다.
- ③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 ④ 지리산 양단수의 이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며,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4 시구에 대한 이해

㉔에는 작업을 독려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이 담겨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선창자가 ㉔와 같이 앞 절을 노래하면 후창자가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선후창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일꾼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노동 작업을 독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④ '일락서산(日落西山)'의 '일락(日落)'과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의 '월출(月出)'과 '달 뜬다'는 의미상 중복이 되는 표현이다.
- ⑤ 일꾼들 솜씨에 대해 만족해하며 농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요
062 시집살이 노래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언어유희, 해학적, 대조, 남성

01 ⑤ 02 ③ 03 ③ 04 ④

본문 089쪽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작품의 화자는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을 '미련새'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원망의 표현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시집살이 개집살이'와 같이 비슷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대부분의 행에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고, 결혼 전과 후의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집살이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사촌 동생과 그에 대해 답하는 사촌 형님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한 행을 4개의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는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호흡을 가지게 되어 규칙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 감상의 적절성 파악

화자는 결혼 전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 결혼 후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 형클어지고 거칠어진 것을 한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사촌 동생은 자신이 아직 겪지 못한 시집살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뿐, 형님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화자는 고된 시집살이를 겪고 있지만 그저 자식들을 보며 위안을 얻고 견디고 있을 뿐이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 ④ 동서는 같은 며느리 처지이지만 화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고자질을 해 화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⑤ 밥상 차리기, 물 길고 방아 찧기, 불 떼고 자리 걷기 등 화자가 겪는 육체적인 고동이 잘 드러나 있다.

3 인물의 성격 파악

화자는 불만이 많고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시누를 ‘뽀족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시아버지가 인자하다는 내용은 없다.
- ② 시어머니가 말이 없다는 내용은 없다.
- ④ 시아버지가 일러바치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없다. 일러바치기를 잘하는 것은 동서이다.
- ⑤ 남편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내용은 없다.

4 운율의 형성 방식 파악

㉠에서는 ‘a-a-b-a’의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는 ‘기침을 하자’라는 동일 시구를 반복하고 이를 점점 심화시키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본문 090쪽

063 잠 노래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부녀자들, 잠, 원망

01 ⑤ 02 ① 03 ②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에서는 ‘잠’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을 원망하고 있을 뿐, ‘잠’의 속성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잠’을 의인화하여 ‘잠아’라고 부르고 있다.
- ② ‘잠아’라는 구절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고 ‘가라’라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다시 자삼하뇨’,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 솟아온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화자의 상황은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이 보내면서 / 잠 못 들어 한하는 데’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2 종합적 이해와 감상

‘어제 간반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온다는 것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늘 잠에 시달리는 여성의 삶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이 보’낸다는 것은 불면(不眠)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화자와 대조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③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은 저녁밥을 먹자마자 바쁘게 바느질을 한다는 것으로, 바쁘고 고된 현실과 연결된다.
- ④ ‘점점옥속 바쁘 들어’ 바느질을 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고단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다. 화자의 처지가 이전과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⑤ ‘두엇 뜰 뜨듯마듯’이라는 것은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다.

3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은 ‘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눈썹 속에 숨고 눈알로 솟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관념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처럼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본문 091쪽

064 정선 아리랑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불가능한, 행주치마, 음성 상징어, 임

01 ② 02 ③ 03 ⑤

1 화자의 태도 이해

‘우리들의 정분은 들락말락한다’에서 알 수 있듯, 남녀 간의 수줍은 사랑, 가슴 졸이는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저 건너 큰아기는 무엇을 주면 오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대상과 이별한 상황은 아니다.
- ③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재회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⑤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우리들의 정분은 들락말락한다’는 것은 가슴 졸이는 사랑에 대해 표현한 것일 뿐, 남성 화자의 불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가 남성이라고 한다면 ‘행주치마 입에다 물고서 눈으로만 반기는’ 대상은 여성이 되므로, ‘정든 남’이 곧 화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② 그 자리에 있는 ‘꽃’은 수동적 존재,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는 적극적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주 어서라도 사랑을 얻으려는 것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⑤ ‘말 한 마디 못 전하니’는 화자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과장적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⑤ 역시 ‘무쇠로 철릭(무관의 제복)을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임과 이별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가정법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떠나는 임을 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 ② 청산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임이 배를 타고 건너가 다른 이를 만날까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II 고전 산문



본문 098~099쪽

설화

001

단군 신화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천손 하강형, 농경, 제정일치, 시련

01 ③ 02 ③ 03 ③ 04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우리 민족이 천손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과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였다는 내용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자손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성성을 알 수 있다.
- ② 고기(古記)라는 옛 문헌의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환인(천상계), 환웅(천상계+지상계), 단군(지상계)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 ⑤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삼대기 형식은 후대 서사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보기〉도 이 글과 같이 부계는 하늘(천상계)에서 내려왔고 모계는 땅(지상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천부 지모형(天父地母型)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과 〈보기〉는 각각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담고 있는 건국 신화이다.
- ② 이 글과 〈보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두 천상계의 후손으로 천손 하강형(天孫下降型) 모티프가 나타나 있다.
- ④ 이 글과 달리 〈보기〉는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설화이며, 이를 통해 신화적 요소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보기〉는 이 글과 달리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활쏘기, 도술)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는 영웅의 일대기가 잘 나타나 있다.

3 소재의 기능 파악

- ① '신단수(神壇樹)'는 하늘과 지상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보기〉의 '보랏빛 줄' 역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지상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4 세부 의미 파악

곰이 사람이 된 것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간 대결에서 곰 숭배 부족의 승리를 상징하지만 이를 합의와 조정을 통해 나라를 세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장은 당시 사회가 농경 중심의 사회였음을 나타낸다.
- ② 쑥과 마늘, 백 일은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즉, 동굴은 통과 의례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하늘의 혈통이라는 신성성을 지닌 단군왕검이 천오백 년 동안 다스린 곳 한반도는 하늘이 선택한 신성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본문 100~101쪽

설화

002

주몽 신화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해모수, 조력자, 고구려, 천부 지모형

01 ④ 02 ④ 03 ③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글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 구체적인 증거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서사적이고 신성성이 강조되어 있는 글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③ 주인공인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天父)와 하백의 딸인 유화(地母)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 ② 주몽이 태어나기 전 햇빛이 어머니인 유화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천제, 그의 아들인 해모수,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친 이야기이다.

2 작품의 구조 파악

주몽의 재주와 능력을 시기하는 대소는 주몽을 경계하여 그를 없앨 것을 주장하지만 금와왕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금와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된 주몽은 유화 부인의 말을 듣고 도망치게 된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과 '단군 신화' 모두 천부 지모형(天父地母型)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의 결합으로 고구려의 국조(國祖: 나라의 시조)인 주몽이 탄생했으며,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의 아들인 환인과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고조선의 국조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A에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卵生)의 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B에는 토テム의 대상인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다.
- ② B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 이념이 드러나 있으나, A에는 건국의 과정만이 드러나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과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은 A에 드러나 있으며, B에는 인물 간의 특별한 갈등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A와 B 모두 새로운 국가의 건국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설화

003

바리데기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오구, 주술성, 약수

01 ④ 02 ② 03 ③ 04 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천상계와 현실계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 두 세계가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상적 삶이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바리공주가 약물을 구하기 위해 초월적 세계로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바리공주가 주량을 한 번 휘둘러 깊으시니 한 천 리를 갔다는 것은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작품 전체를 볼 때 바리데기가 태어나서 오구가 될 때까지의 일대기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이때가 어느 때냐 ~ 월출동령(月出東嶺) 달이 솟네.'에 4·4조의 율문체가 사용되고 있다.

2 구절의 의미 파악

㉔은 춘삼월 호시절이라는 때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을 뿐 비현실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③ 자신을 소개하면서 국왕의 세자라고 하는 것은 바리공주가 남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석가세존은 바리공주가 부모에 의해 버려졌을 때 바리공주를 구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바리공주와 석가세존의 만남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무상 신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상 신선이 초월적 세계에 속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바리공주가 남장을 한 것은 약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부모님이 남아를 바라여 왔던 소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것은 주인공이 겪는 시련에 해당한다.
- ②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바리공주를 구해 주는 것과 '다화'를 주어 바리공주가 약물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조력자의 도움에 해당한다.
- ④ 원혼을 달래는 자리에서 불렸다는 것은 이 노래가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⑤ 약물을 구하기 위해 떠난 바리공주는 온갖 시련을 딛고 일어나 결국 약물을 구하게 되는데, 이 약물은 영웅적 활약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4 구절의 상징적 의미 파악

물 길어 삼년, 불 때는 데 삼년, 나무 베는 데 삼년, 총구 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바리공주는 부모님을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설화

004

수삽석남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부모, 첩, 죽음

01 ③ 02 ③ 03 ④

1 사실적 내용의 이해

최항이 죽고 난 뒤에 최항의 부모가 최항과 첩의 만남을 가로막았던 것을 후회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첩은 최항의 집에서 최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최항의 시신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매화꽃 가지는 최항이 첩에게 준 것이므로 죽은 최항의 머리에 매화꽃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항의 혼이 첩에게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 ④ 최항의 부모는 둘이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으므로 적절하다.
- ⑤ 첩이 통곡하며 졸도한 후 최항이 깨어났으므로 적절하다.

2 창의적 변용

이 글에서는 최항의 부모가 제3자로 개입하지만, <보기>에서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에서는 매화꽃을 최항이 첩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기>에서는 이를 '석남꽃'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최항의 '죽음-환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는 최항이 깨어난 후 20년을 첩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보기>에서는 이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화자는 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첩의 놀람과 슬픔, 그리고 기쁨의 심정이 잘 드러나게 된다.

3 서사 구조의 이해

이 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벌을 받는 금기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이미 죽은 최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 ② 이미 죽은 최항과 첩의 사랑이 작품의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 ③ 구체적인 증거물로 매화꽃이 제시되고 있다.
- ⑤ 최항의 부모는 최항이 첩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설화

005

경문대왕의 귀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귀, 대나무

01 ② 02 ③ 03 ②

1 서술상의 특징 이해

경문대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진다는 설정이나,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난다는 설정은 모두 비현실적이다.

오답피하기

- ①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인물의 내적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노출시킨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이 글에서는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성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복두장이 대숲에서 비밀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문제 상황이 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2의 문제 상황은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과 <보기>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중심 인물의 귀가 길다는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③ 이 글과 <보기>의 중심 인물은 모두 귀가 다른 사람보다 길다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④ <보기>의 미다스 왕은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귀가 길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서 왕은 자신의 신체적 비밀과 관련된 소리가 나는 대숲을 모조리 없애고 대신 산수유 나무를 심었으나, <보기>에서는 그런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본문 106~107쪽

설화

006

온달전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신의, 주제 의식, 의지

01 ④ 02 ④ 03 ③ 04 ③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

평강왕은 무제가 쳐들어왔을 때 선봉이 되어 용감하게 싸운 온달을 보며 '이 사람이 내 사위니라.'라는 말로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에는 내쫓았던 평강 공주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강왕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노모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며 자신의 집은 평강 공주와 같은 귀인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말로 온달과 혼인하겠다는 평강 공주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 ② 온달은 평강 공주의 말을 수용하고 있으며, 평강 공주가 온달에게 실망한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평강 공주는 진심으로 온달과 혼인하기를 원해 온달 모자를 설득하였으며, 온달이 공주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평강왕은 자신에게 신의 없음을 직언하며 온달과 혼인하겠다는 딸의 말에 분노하여 딸을 내쫓았다.

2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 파악

<보기>에는 작품 속에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상이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반영론적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신분 질서의 변동과 연관 시켜 감상한 ④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③, ⑤ 작품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인 구조론에 입각하여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 ②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인 효용론에 입각하여 감상한 것이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서동은 선화 공주와 인연을 맺기 위해 거짓된 내용의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고, 그 결과 궁에서 쫓겨나게 된 선화 공주가 실제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온달과 평강 공주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은 노래와 상관이 없다.

오답피하기

- ① 평강 공주는 온달과 혼인하기 위해 부왕의 명을 거역하고 스스로 궁을 나온 것에 비해, 선화 공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 ② 이 글의 온달은 평민, '서동요'의 서동은 마를 파는 평민이다.
- ④ 이 글에서는 평강 공주의 내조로 온달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며, '서동요'에서는 선화 공주의 제안으로 공주의 부모에게 금을 보낸 서동이 그들의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된다.
- ⑤ 서동은 그의 어머니가 용(龍)과 정을 통하여 낳은 인물로,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기이한 탄생의 주인공이다.

4 인물의 성격 파악

평강 공주는 어릴 때 자신을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주는 신의를 중시하며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직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본문 108~109쪽

설화

007

구복 여행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이무기, 옥황상제, 지역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⑤

1 구성 방식의 파악

삼화관 하나의 이야기 안에 포함된 독립성을 띤 짧은 이야기를 뜻한다. 이 글에는 막내아들의 원정, 젊은 여자의 원정, 이무기의 원정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비현실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꿈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 ② 복을 찾아 떠나는 막내아들은 서민적이고 민중적인 인물이다.
 ③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이무기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무생물의 대상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건 전개 과정의 이해

이무기는 '나는 득천 기회가 넘었는데도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원정을 들어다 달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낮은 신분으로 인한 불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식모의 원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젊은 여자는 앞들이 다 자신의 것일 정도로 재산이 많으나 남편은 얻기만 하면 죽는다고 했다.
 ⑤ 옥황상제는 막내아들만을 만난다. 또한 막내아들의 원정에 대한 답을 전해 줄 뿐 꾸짖지는 않는다.

3 작품 속 문학의 특성 이해

'구술하는 사람에 의해 불필요하게 덧붙여지는 말이나 생각'은 사건 전개와 무관하게 구술자에 의해 첨가되는 것이다. ㉠에서 '그래 그때에는 뱀도 말했던지'는 뱀이 말을 한다는 설정을 재미나고 신기하게 여긴 구술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사건 전개에도 불필요하다.

4 문맥적 의미 파악

㉠은 젊은 여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사정을 전해 달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를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 ① '하늘을 어찌 가' 나고 꾸짖는 것은 막내아들의 말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② '쇠지팡이가 닳도록' 가졌다는 것에서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갈 길이 없고' '방향을 하' 게 된 것은 구복을 위한 여정이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이무기가 무지개다리를 놓아 주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무기의 도움이 구복의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무기를 조력자라 말할 수 있다.

5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구비 문학이 적응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나 유형을 바꾸지는 않는다. 결말과 관련된 삽화는 필수적 삽화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남자가 복을 얻는 결말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구복 여행담은 세계 곳곳에서 널리 구전되고 있다고 했다.
 ② 전체적인 이야기 안의 짧은 이야기를 삽화라고 하므로, 구복 여행의 과정을 삽화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삽화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시작 부분의 이야기는 사건의 출발이자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므로 빼 수 없는 필수적 삽화에 해당한다.



008 화왕계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장미, 직언, 풍자

01 ④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④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인물의 대화를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요약적 진술이란 서술자가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줄거리처럼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 ① '삼춘가절'이라는 단어를 통해 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붉은 얼굴에 옥 같은 이' 등에서 비유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우의적 표현'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인간 세상의 문제를 꽃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는 효용론적 관점을 말하고 있다.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을 받아들이는 독자가 어떤 유의미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와 같은 독자에 초점을 둔 작품 감상 관점이다. 따라서 이 글이 주는 깨달음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④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작가의 창작 의도를 말하고 있으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이다.
 ②, ⑤ 작품이 창작되던 시대, 사회적 배경 맥락을 말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이다.
 ③ 작품 자체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이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과 〈보기〉 모두 각각 '장미와 할미꽃', '철쭉, 두견화와 매화'를 대조함으로써 '할미꽃(소박하지만 이로운 말을 함), 매화(추운 겨울 눈 속에서 홀로 폼)'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보기〉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쭉, 두견화'와 같은 일반적인 꽃은 따뜻한 봄에 피지만, '매화'만은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홀로 피며 봄을 가장 먼저 알린다고 하여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꽃'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체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도 대상(꽃)에 인격을 부여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대상(꽃)의 화려하고 소박한 외양에 초점을 두고 간신과 충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 말하기 방식 파악

㉠에서 백두옹이 '임금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

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임금님의 높이신 덕을 듣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인품을 칭찬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비록 사마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관과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비록 겉보기에 허름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존재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화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 ④ '맹자'와 '종당'의 고사를 예로 들어 자신의 미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 ⑤ '그러나 지금 비오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들던 바와 달리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한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다.

5 한자 성어의 이해

'후회막급(後悔莫及)'이란 '아무리 후회(後悔)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또는 '일이 잘못된 뒤라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⑤는 장부의 말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화왕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6 세부 의미 파악

화왕은 백두옹의 '외관에 치우쳐서 간사한 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관에 치우쳐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문 112~113쪽

009

조신의 꿈 _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세속적 욕망, 깨달음, 전설, 꿈, 돌미륵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②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글은 내화는 '꿈', 외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다. 내화와 외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여 주므로 시점이 같다.

오답피하기

- ① 정토사 건립에 대한 내용은 사원을 세우는 이야기와 밀접한 서사적 요소이다.
- ② 절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며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에 대한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 ④ 이 글은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로 후대 '옥루몽', '구운몽' 등의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 ⑤ 조신은 꿈이라는 가상적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몸 닦는 것 잘못됨은 먼저 성의에 달린 것'을 통해 스스로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고, '어찌 가을날 하룻밤 꿈만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상에 이르리.'라는 부분에서 꿈을 통한 일시적 깨달음만으로는 청량의 세상에 이르기 힘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꾸준한 수양을 통한 깨달음을 강

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인생이 한 꿈과 같음을 깨달을 것을'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제시한다.
- ③ 이 글에서 꿈을 깬 후 조신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젊은 얼굴 늙어졌네'라는 <보기>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보기>의 '청량의 세상'은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깨닫는 경지를 의미한다.
- ⑤ 꿈속에서의 삶과 현실적 삶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각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표현상의 특징 파악

현재와 대조되는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화를 시작하였고(ㄷ), 고난이 극심하므로 이별할 수밖에 없음을 '어느 거름에 사랑의 싹을 퇴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고(ㄴ), 웃음을 '이슬', 약속을 '지초와 난초' 등에 빗대어 삶의 허무함을 보여 주고 있다(ㄱ).

오답피하기

ㄷ. 부인은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운명론적 사고관을 보여 주기는 하나 이후 조신과 헤어지자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4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 것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어찌할 도리나 방책이 없어 꿈쩍 못함'의 의미인 '속수무책(束手無策)' 정도가 어울린다. '고진감래(苦盡甘來)'는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이다.

오답피하기

- ①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거문고와 비파의 어울림처럼 사이좋은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한다.

5 소재의 기능 파악

'등잔불'은 조신이 꿈을 꾸고 깨는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오답피하기

- ① 꿈을 깨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 ③ 조신은 자신의 행동을 관음보살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
- ④ '돌미륵'은 꿈의 내용을 현실로 이어 주는 소재로 관음보살의 의도로 조신이 깨우침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정토사의 건립은 사원 연기 설화로서의 근거가 된다.



본문 114~115쪽

010

공방전 _ 임춘

● 시험 출제 포인트 | 돈, 이중적, 매관매직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5 ②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돈을 의인화하여 우의적(간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방(方)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③ 이 글에는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이 글은 돈의 폐해를 나타내어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계세징인(戒世懲人)의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 ⑤ 이 글은 가전체로서 전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공방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상

〈보기〉에서 사신은 돈을 미리 없애지 못해서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돈을 없애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공방의 일생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인간사의 허무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③ 공방의 입장을 두둔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 ⑤ 원제가 일찍 공부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금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3 인물의 성격 파악

공방은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시정의 사람이라도 다 함께 사귀고 거리의 악소년들과 어울리기도 한다는 것으로 볼 때 대인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없다.

4 한자 성어의 적용

①은 공방이 권력을 지닌 오왕 비에서 붙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므로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인 '호가호위(狐假虎威)'가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낸 한자성어이다.

오답피하기

- 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정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 ②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괴로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 ⑤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5 문맥적 의미 파악

겉이 둥근 것은 돈의 긍정적 속성을, 속이 네모난 것은 돈의 부정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돈은 겉은 둥글해 원만하고 착해 보이지만 정작 속은 모가 나 있고 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 ① 공방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돈이 세상에서 점차 유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③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을 천시하고 상업(돈)을 좇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돈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매관매직하는 세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사람들이 공방의 말 한마디가 황금 백 근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공방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돈이 매우 큰 위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문 116~117쪽

가전체

011

국순전 - 임춘

● 시험 출제 포인트 | 비평, 계세징인(戒世懲人), 단단한 것, 아첨

01 ④

02 ①

03 ①

04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국순은 영웅과 같은 행적을 보이는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작가는 국순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술을 의인화하여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므로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② 이 글은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의 효시로 볼 수 있다.
- ③ 이 글은 고려 후기 임금과 신하들이 술과 향락에 빠져 나라가 혼란해진 것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⑤ 국순의 조상부터 설명하여 국순이 죽기까지의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2 인물의 태도 파악

‘사관’은 국순이 임금에게 뽐혀 벼슬을 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였고, 국순으로 인해 왕실의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러워졌다고 하며 국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국순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국순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국순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므로 임금을 비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바른 말을 하지 못한 신하들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임금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작품의 내용 이해

국순의 성품을 서술하는 것은 술의 특징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즉, 국순의 성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국순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게 됐다는 의미이다.

오답피하기

- ② 국순이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은 시기이다.
- ③ 국순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부정적 속성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선정을 베푸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데 현재 국

순은 벼슬이 없는 상태이다.

⑤ 관리들이 국순을 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구절에 대한 이해

‘국순’이 제 입을 재갈 물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순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국순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모’는 보리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리는 밭에서 나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먹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 ② 방아와 절구 사이에 곡식을 넣고 찼는 모습을 ‘교분을 정하였다’고 하여 의인화한 것이다.
- ③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천하의 백성들이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술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한 것이다.
- ④ 임금과 신하의 회의에 항상 술을 마시는 상황을 ‘술을 시켜 짐작하게 하네’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가전체

012

국선생전 _ 이규보

본문 118~119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가계, 평가, 술, 치국(治國)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①

1 갈래적 특징 이해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 형식으로 구성한다. 주인공의 행동이나 처지는 그 사물과 관련된 고사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여 그려진다. 특히 가전체는 사물의 내력이나 속성, 가치에 주목하여 여기에 창의성이 상당히 가미된 허구적 작품이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에서 ‘임금의 총애가 극도에 달하자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그 화가 비록 자손에 미쳤더라도 유감될 것이 없다 하겠다.’라는 사신의 평가를 통해 국성의 자손들이 불행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국순의 자손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감상의 적절성 파악

임금이 마음에 불쾌함이 있어도 성이 들어와 뵈면 비로소 크게 웃었다는 내용은 임금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면 잊어버리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지 술을 마시느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성은 어릴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는 것에서 온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② 임금이 성을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주고, 마음이 불쾌할 때 성이 들어와 뵈면 크게 웃었다는 것에서 임금에게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작가는 국성을 통해 신하로서 왕을 모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때를 보아 물러날 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 ④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비루함과 인색함이 짝튼다.’는 유영과 도잠의 말에서 알 수 있다.

4 작가의 생각 파악

사신의 평가에 따르면, 국 선생은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정을 도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는 술을 대하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인물의 성격 파악

①은 사태나 현상을 미리 짐작하여 파악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뜻의 ‘견기(見機而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성이 순리에 따라 적절히 처신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전 수필

013

격황소서 _ 최치원

본문 120~12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귀신, 토벌군, 부귀영화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③

1 글쓴이의 의도 파악

글의 내용으로 보아 황소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으며, 황소의 난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항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황소의 난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황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분열을 유도하는 내용은 확 인할 수 없다.
- ④ 황소의 무리가 결국 궤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황소의 무리를 실제로 엄하게 처단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황소의 난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황소의 난의 대의명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 글쓰기 전략의 이해

반란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토벌군의 강력한 위력을 ‘몸을 잡고 표범을 잡는 군대’로 나타내고 있다.
- ② 항복하면 귀순하여 ‘영화롭게’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처자도 잡혀 죽으려니와 종족들도 배임을 당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천하 사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땅 가운데 귀신까지도 가만히 죽이려고 의논하리라.’를 통해 알 수 있다.

3 말하기 방식의 파악

자신의 말을 따를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는 것은 [B]이다.

오답피하기

- ① [B]에서는 동탁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A]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지 않았다.

- ② B에서는 명령형 종결 어미 ‘라’를 사용하여 반란을 멈추라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농민으로 일어나서 불을 지르고 겁탈하는 것’, ‘살상(殺傷)하는 것’을 상대방의 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황소가 난리를 계속 일으킬 경우 결국 황소가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상황을 들고 있으며, B에서는 배반할 경우 멸망할 것임을 들어 황소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까마귀처럼 모여 술개같이 덤비던 군중’은 황제의 군대가 아니라 황소의 무리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오답피하기

- ① ‘어두운 길에 헤매이는 자’는 황소와 황소의 무리를 가리킨다.
- ② 황소의 위급한 상황을 ‘거꾸로 매달린’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글쓴이의 명은 천자(황제)를 머리에 이고 있다 하여 글쓴이가 하는 말이 황제의 뜻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이길 수 없듯이 황소의 무리는 황제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생략된 내용의 추리

뒤의 문맥으로 볼 때, ㉔에는 화자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이 글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황소’에게 보내는 격문임을 감안하면, 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③이다.



본문 122쪽

14 경설 _ 이규보

● 시험 출제 포인트 | 관용, 고정관념, 본질, 결백

-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⑤

1 작품의 특징 이해

거사는 거울이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손의 일반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으나 거울에 관한 고사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거사’가 작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거사와 손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거사와 손이 문답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거울이라는 사물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인물의 관점 파악

이 글에서 거사는 흐린 거울을 대하는 이유를 ‘흐린 것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람의 허물까지 감싸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맑은 거울을 유지해야 한다는 ③은 거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거울이 맑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잘생긴 사람은 수효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효가 많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겹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3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㉑에서 말하는 ‘희미한 것을 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결백한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④가 타인의 결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4 인물의 태도 파악

㉒에서 ‘손’은 거사에게 설득당하여 유구무언(有口無言)하는 상태로, 상대방의 말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말하기 방식의 파악

‘거사’는 흐린 거울의 의미를 자신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고 있고 ‘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⑤가 적절하다.



본문 123쪽

15 이옥설 _ 이규보

● 시험 출제 포인트 | 잘못, 해, 비유

- 01 ④ 02 ④ 03 ③

1 세부적 내용의 이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때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수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행랑채의 두 칸은 제때 수리를 하지 않아 수리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나머지 한 칸은 제때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경비가 크게 들지 않았다.
- ② 백성이 못살게 되면 나라가 위태하게 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 ③ 앞의 두 칸은 오랫동안 비에 노출되었는데, 그로 인해 다시 사용할 수 없었을 알 수 있다.
- ⑤ 세 번째 칸의 사례를 통해 수리가 필요할 때 제때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2 구조를 통한 내용 파악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을 뿐 개인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집 수리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이 A에서 ‘두 칸’과 ‘다른 한 칸’으로 대조되어 제시되고 있다.
- ②, ⑤ A의 경험은 B에서 사람의 몸과 관련된 깨달음으로, C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깨달음으로 유추되어 적용되고 있다.
- ③ B에서는 A의 집 수리와 관련된 경험을 사람의 몸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3 글쓴이의 의도 파악

두 작품 모두 잘못된 부분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좋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의미하는 '개과천선'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②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④ '근목자흑(近墨者黑)'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전 수필

016

토실을 허문 데 대한 설 _ 이규보

본문 124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화초, 길쌈, 권한

01 ② 02 ③ 03 ③

1 중심 내용의 파악

한겨울 토실의 실용성을 주장하는 종들과 이 토실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를 허물 것을 주장하는 이자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자는 토실의 실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③ 토실의 이용 용도에 대해 이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토실을 만든 의도에 대해 이자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실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토실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거나 보편적 현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⑤ 이자는 한겨울에 토실을 만드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토실을 허무는 구체적 경험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④ 글쓴이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물인 '이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3 말하기 방식의 파악

종들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간파했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를 통해 설의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토실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논리적 근거를 들고 있다.
 ④ 주인이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종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⑤ 겨울에 굴속에서 살아가는 속성을 가진 뱀이나 두꺼비와 달리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고전 수필

017

차마설 _ 이곡

본문 125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소유물, 유추, 빌린 것

01 ④ 02 ② 03 ③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에서 풍자적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이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진정한 소유란 타인에 의해 얻어지는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유의 절대적 가치는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③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라며 유사한 경우를 열거하여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 글쓴이의 의도 파악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이나 권력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소유란 타인의 인정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3 글쓴이의 태도 파악

이 글의 글쓴이는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인간에게 진정한 소유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힘센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자기는 힘과 분수로 자연을 두고 어찌 얻겠느냐고 하며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그저 두고 즐기겠다고 하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② 떠난 임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⑤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하고 있다.



고전 수필

018

주옹설 _ 권근

본문 126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대담, 역설적, 평안함, 위태로움

01 ① 02 ① 03 ③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글쓴이의 허구적 대리인인 손(客)과 주옹(舟翁)의 문답 형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다.'에서 '물결'을 '인간 세상'에, '바람'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하여 인간 세상의 단면을 유추하고 있다.
- ③ 일반적으로 '배 위에서'의 삶은 몹시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옹은 '배에서의 삶'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든다는 역발상적 사고를 앞세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주옹이 물 위에서 삶의 방식과 땅 위에서 삶의 방식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세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 ⑤ 손(客)과 주옹(舟翁)의 문답 형식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주옹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있는 것과 같으니 항상 마음을 다잡아 조심해야 한다는 것과 거센 풍량이 일어도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배가 안전한 것처럼 언제나 자기 삶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문맥적 의미의 파악

㉔은 평안한 곳을 의미하지만, 나머지는 위태로운 곳을 의미한다.



고전 수필

019

한 삼태기의 흠 _ 성현

본문 12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부지런한, 학문

01 ④ 02 ⑤ 03 ④

1 서술 방식의 이해

(라)는 부귀와 공명은 학문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따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학문적 성취를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가뭄이 들었을 때 이를 비관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가을에 수확을 하지 못한 농부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린 농부를 대조하고 있다.
- ② 농사가 잘 된 이유는 고통을 참아내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 뜻한 바를 이룬다는 보편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농사일을 학문으로 연결하여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 ⑤ 학문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이흠 길 높은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의 흠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글쓴이가 보고 들은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피하기

- 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중도에 학문을 그만두는 것을 이흠 길 높은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의 흠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 ③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민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구체적으로 본 현상이다.
- ④ 농사 짓는 일을 통해 유추하여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이흠 길 높은 산'은 이루어야 할 학문적 성취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고, '한 삼태기의 흠'은 학문적 성취를 위해 끝까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고전 수필

020

원이 아버지께 _ 이응태의 부인

본문 128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젊은 나이, 아내, 자식

01 ② 02 ② 03 ②

1 글쓴이의 상황과 정서 파악

글쓴이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저세상으로 가고 임신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상황에 어울리는 것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뜻인 '고립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나쁜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은 글쓴이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③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순망치한'은 글쓴이의 상황과 관계가 없다.
- ④ 몹시 분하여 이를 간다는 뜻인 '절치부심'은 슬픈 처지에 있는 글쓴이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 ⑤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한다는 '각골난망'은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한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2 세부 내용의 이해

이 글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죽음에 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처음 부분에서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③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서럽겠습니까?'로 미루어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서러움

때문이다.

⑤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로 마무리할 수 있다.

3 소재의 기능 파악

‘편지’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글쓴이의 마음(그리움, 서러움)이자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보기>에서 멀리 있는 임에게 보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은 ‘더 매화(梅花) 것거 내어 님 거신 디 보내오져.’로 볼 때 ‘매화’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동풍’은 눈을 녹이는 바람으로 봄이 왔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③ ‘암향’은 은은한 매화의 향기를 표현한 시어이다.
- ④ ‘황혼의 돌’은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다.
- ⑤ ‘님’은 화자의 마음이 아닌 직접적인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 수필 021 서포만필 _ 김만중

본문 129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구마라습, 앵무새, 아낙네

01 ④ 02 ④ 03 ①

1 글쓴이의 관점 파악

좋은 문학 작품이 실용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③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길은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노래에는 민족 고유의 정서와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한자로 된 시문을 읊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지금 우리나라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라며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데서 알 수 있다.
- ⑤ ‘사방(四方)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2 글쓰기 전략의 파악

학사 대부들의 시부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 예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송강의 가사 작품을 중국의 이소에 비유하여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② 송강의 가사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 구마라습의 말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 ③ 당시의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판하고 있으며, 사대부들이 읊는 시문과 여염집 아낙네나 나무꾼의 노래를 대조하여 한글로 된 문학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송강의 가사 작품 중에서 후미인곡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

유로 한자어의 사용이 다른 작품에 비해 적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3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 파악

이 글과 <보기> 모두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한자로 된 글이 아니라 우리말로 된 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보기>에서 옛말은 한자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저속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 ③ 진실한 삶이 좋은 문학을 쓰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 작품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문학이 읽은 이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읽은 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글을 쓸 때 수식의 사용이나 다듬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전 수필 022 산성일기 _ 작자 미상

본문 130~13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인조, 병자호란, 객관적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③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 수필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사문학’으로, 이 글에서 허구적 성격은 찾을 수 없다.

2 작품의 내용 이해

27일에는 남한산성을 지원해 줄 지원군을 기다리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아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21일, 22일, 28일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22일, 23일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6일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24일의 내용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3 인물의 의도 파악

인조는 23일에는 전투를 종용하다가 25일이 되자 청에 화전을 청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날씨가 매우 추워 군사들이 얼어 죽는 등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 작중 상황의 파악

김류의 군대가 대패한 이유는 거짓으로 유인하는 청나라 군사의 계략에 말려들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점, 무리하게 군사들을 동원하려 한 점, 군사들에게 병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군사들이 전투에 지쳐 있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문법 표현 이해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니정직, 념병'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이다.



고전 수필

023

통곡헌기 _ 허균

본문 132~133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의지, 비판 의식, 깊은 생각, 시대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④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조카 허친이 지은 '통곡헌'이라는 편액을 통해 일반인들이 지닌 고정 관념에 대해 반박하고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당대 사회를 '말세'로 규정하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작품의 내용 이해

이 글은 '통곡헌'이라는 편액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반론이다. 허친의 통곡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님을 통해 당대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고사 속 인물들의 통곡의 의미를 인용하여 당대 사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발상 및 표현 방식 파악

㉠은 일종의 역설적 인식으로 동시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출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 이처럼 역설적 인식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고 본 ③이다.

오답피하기

①은 점층적인 표현법을, ②는 직유법과 반복법, 대구법을, ④는 가정법과 설의법을, ⑤는 가정법과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4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③의 '양주'는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선과 악으로 갈리는 것을 한탄하여 통곡한 고사 속의 인물이다. 이 글에서 '친구끼리 반목하여 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을 속이는 사악함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보기〉는 '운다'는 행위가 슬픈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다. 이 글도 같은 맥락에서 '울음'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두 글의 공통점은 ④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두 작품 모두 울음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두 작품 모두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시대 변화에 따른 울음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고전 수필

024

낙치설 _ 김창흡

본문 134~135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이, 주자, 비유, 반성

01 ①

02 ⑤

03 ⑤

04 ④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화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눈이 어두워진 후 더욱 수양에 정진하였던 주자의 일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③ 이가 빠진 구체적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때미의 배에 거북의 창자 꼴이 될 것이니'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가 빠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이가 빠지고 난 후 처음에는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편안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2 글의 구조를 통한 내용의 이해

쾌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이가 빠져 가장 슬픈 일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들고 있다.

②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한 것은 육체적 건강에 대한 글쓴이의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가 빠진 경험은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④ ㄴ에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음을 흥내내며 살았던 모습이 나타나며, ㄷ에는 분수를 알게 된 뒤 받아들여진 나이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이'가 없는 현재 상황을 허무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보기〉의 노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이여 이여!'라는 구절을 통해 '이'를 구체적 청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겠다고 말하고 있다.

③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 떨어지면 한낱 불품없는 돌. / 여름내 무성한 나뭇잎도 / 서리 내리면 떨어지는 법'이라는 구절을 통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것은 절로 그리되는 일 / 딱하다 애처롭다 할 것 없다네.'를 통해 육체의 노쇠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은 자신의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육체적으로 노쇠하면 학문적 성취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이가 빠지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얼굴도 뻘뻘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가 빠져 외모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흥년으로 인해 젊어 죽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섭생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튼튼한 이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⑤ 더 일찍 눈이 어두워졌으면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는 데 전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나타나 있다.



고전 수필 025

동명일기 _ 의유당

본문 136~13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비유법, 회오리바람, 수레바퀴, 부녀자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문장이 길어 간결한 문체라고 볼 수 없다. 섬세한 문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귀경대에 도착해서 일출을 보기까지의 여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 ② 사군과 기생, 봉이 어머니, 영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얼레빗, 폐백반, 진홍대단, 홍진, 홍옥'과 같은 장신구, 가사 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부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복, 급창' 등을 통해 계급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일출의 장면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그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가미하여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에서는 일출을 보기 위해, <보기>에서는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모두 '해'가 뜨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에서 '해'가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반면, 이 글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해를 뜻한다.
- ② <보기>에서 해를 의인화하여 '옛날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풍당'에서, <보기>는 '이글이글, 뿔뿔'에서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이 글에서는 해가 뜨기까지의 변모 과정을 비유를 통해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기>는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찬 상태이다.

3 세부 내용의 파악

기생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는 글쓴이를 사군과 숙씨, 봉이 어머니가 말린다. 한번 더 사군에게 물어 확인하는 글쓴이에게 사군은 '오늘 일출이 유명하리다'고 말하며 좀 더 남아 일출을 보고 가라는 뜻을 드러낸다.

오답피하기

- ① 사군은 일출을 보지 않고 돌아가려는 글쓴이를 말리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일출을 보고 싶은 마음에 떡국도 먹지 않고 바깥 나오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이전에 일출을 보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여 버리고 버려다가 드디어 보게 되었다.
- ⑤ 일출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일행을 깨운 것은 글쓴이다.

4 글쓴이의 태도 파악

이 글의 글쓴이는 일출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⑤ 역시 '매화'의 아름다움과 향기, 눈 속에서 피는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여 병자호란 때 왕이 항복한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를 노래하고 있다.
- ②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③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④ 고려 말기 혼탁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

5 문맥적 의미 파악

'회오리바람', '쟁반', '수레바퀴'는 모두 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 '소의 혀'는 물에 비친 해 그림자를 의미한다.



고전 수필 026

통곡할 만한 자리 _ 박지원

본문 138~13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갓난아이, 기쁨, 즐거움, 일반적, 개성적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④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상식을 넘는 독특한 발상과 치밀한 분석, 참신한 비유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전의 수법은 쓰이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글쓴이가 실제 중국을 여행하던 중 요동 별판을 보고 느낀 감회를 적은 글이다.
- ② 정 진사와 글쓴이인 '나'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글쓴이는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고 있으므로 독특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 ⑤ 요동 별판에서 느끼는 감정을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의 감정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2 글쓴이의 정서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광활한 요동 별판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있다. ⑤에서도 화자는 백운대에 올라 넓은 경치를 바라보며 상쾌함을 느낀다.

끼고 자연에 도취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봄날 늦은 밤에 애상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② 고국을 떠나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 ③ 단종에 대한 화자의 절의와 지조가 나타나 있다.
- ④ 자연속에서 느끼는 한정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3 인물의 관점 파악

이 글에서 정 진사는 일반적, 상식적 사고를 통해 요동 별판을 바라보지만 글쓴이는 개성적, 창의적 사고를 통해 요동 별판을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 말하고 있다.

4 발상 및 표현의 특징 파악

①에서는 무생물인 백담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일행을 맞이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주객전도(主客顛倒)의 표현으로, 태복의 들뜬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에도 배 위에서 화자가 푸른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장면이 산봉우리가 '나' (화자)를 본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주체(화자)와 객체(산봉우리)가 뒤바뀐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푸르다'와 '희다'의 색채 대비와 대구가 나타나 있다.
- ③ '물(여흠)'에 감정을 이입해 임(임금)을 모시지 못하는 슬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반어적 기법을 통해 확실적이고 무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5 적절한 한자 성어의 적용

①은 끝없이 드넓은 요동 별판의 풍경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아득하게 끝없이 멀어서, 눈을 가리는 것이 없음을 뜻하는 '일망무제(一望無際)'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함을 뜻하는 말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 ② 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으로 돌아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 ③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세태라는 뜻으로, 권세가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쫓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무작정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실현될 수 없는, 또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언제까지나 기다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고 있으나, 경험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가치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권력을 지향하다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듣고 '나를 지킨다'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연스레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본질적 자아를 지킨 큰형님과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글쓴이, 작은형님의 대조를 통해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이 글은, 인간은 세상에 있는 온갖 유혹과 위협에 쉽게 흔들리므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정신을 집중하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말을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지 변하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하는 임기응변(臨機應變)의 태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3 세부 내용의 이해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은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 ①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글쓴이 또한 처음 '수오재'라는 이름을 듣고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② 앞부분의 글쓴이의 생각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글쓴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는 말은 사람이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④ 벼슬길에 올라 본질적 자아를 잃고 정신 없이 뛰어다니다가 귀양을 와 서야 비로소 본질적 자아인 '나'에게 물음을 던지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의 글쓴이는 과거에 벼슬길에 나가서 본질적 자아 '나'를 잃었으나, <보기>의 화자가 '나'를 잃은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에서도 화자는 돌담을 경계로 하여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로 분열되어 있다.
- ② <보기>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에 나서고 있다.
- ④ 이 글의 글쓴이가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



본문 140~141쪽

고전 수필 027 수오재기 _ 정약용

● 시험 출제 포인트 | 지키는, 교훈, 이유, 본질적 자아

01 ⑤ 02 ② 03 ⑤ 04 ③

자아이므로 <보기>의 화자가 찾으려고 하는 대상과 일치한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내뺏에 큰갸를 뛰어들'다고 했는데, 속세의 벼슬 길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보기>의 화자가 걷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도 암울한 현실이다.



고전 수필

028

파리를 조문하는 글 _ 정약용

본문 142~143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지배 계층, 백성

01 ③

02 ⑤

03 ②

04 ④

1 세부 내용의 이해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뇌물을 받고 부역이나 세금을 감면하는 모습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④ '그런데도 묵은 곡식에서 생긴 쌀벌레는 고을 창고에서 위 아래로 어지러이 날아다닌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사람은 죽어도, 내야 할 세금은 남아서 형제에게까지 미치게 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역마를 달려 급히 보고하는데, 내용인즉 마을이 모두 편안하고 길에는 굶주려 수척한 사람 없으니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형식에만 치중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왜냐하면 이것들은 분명 굶주려 죽은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몸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글쓴이는 파리가, 굶어 죽은 이가 환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가의 곡식을 풀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관가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③ 글쓴이는 관리들의 수탈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만들어 내는 주 원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④ 부패한 수령들의 행태를 임금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알게 하여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부패한 수령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백성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술 방식의 파악

[A]에서는 대궐에 있는 임금이 관리들의 부패와 이로 인한 백성들의 참상을 알게 되면 임금의 위엄을 떨쳐 백성들의 굶주림이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ㄱ). 또한 '파리'를 구체적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ㄴ).

오답피하기

[A]에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ㄷ). 설의적 표현 역시 확인할 수 없다(ㄹ).

4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글과 <보기>에는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재물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수령 및 관리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애정은 나타나지만 예찬의 정서는 이 글과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는 현실의 모순을 임금의 올바른 처사를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현실 개혁의 의지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시련을 견뎌내는 강인한 백성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윤리와 도덕에 앞서 재물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수령 및 관리들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지는 이 글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고전 수필

029

조침문 _ 유씨 부인

본문 144~145쪽

●시험 출제 포인트 | 행장, 애도, 과장, 의인법, 슬픔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③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총총히, 씹쌈이, 자근동, 아야아야, 삼삼하고' 등의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바늘'의 특성을 나타낼 때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④ '바늘'을 '너'로 의인화하여 상실의 슬픔을 제문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였다.

②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표현을 통해 바늘을 잃은 글쓴이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오호통재라'와 같은 탄식과 슬픔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2 갈래적 특징 파악

⑤에서 '인생무상의 주제 의식'이라고 하였는데, 이 글의 주제는 '바늘을 잃은 슬픔'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내용 전개와 파악

각 부분의 내용은 '제문 작성의 이유 → 바늘을 얻게 된 내력 → 바늘과 나의 관계와 처치 → 바늘이 지닌 신묘한 재주 → 바늘과의 이별 순간 → 바늘에 대한 애도'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4 문맥적 의미 파악

㉠은 내세 혹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재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⑤에서 '부부의 인연'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보기〉는 혈육을 잃은 슬픔을 '미타찰'에서의 재회를 위해 불도에 정진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즉, 불교적 수행을 통한 재회의 기약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 역시 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생에서의 재회를 기원하고 있는데, 회망적 기약을 통해 슬픔의 극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이 글에만 해당된다.
 ④ 〈보기〉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글은 제문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유교와 관계 있으나 특정 종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이 글은 '편작의 신술', '백인이 유아이사'에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고전 수필 030

규중칠우쟁론기 _ 작자 미상

본문 146~14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대조, 공, 규중 부인, 이기적, 직분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③

1 서술상의 특징 이해

이 글은 일반적인 수필과 달리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대상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바느질에 쓰이는 일곱 가지 도구를 의인화하여 규중 칠우로 나타내고 있다.
 ②, ③ 규중 칠우를 통해 자신들은 공치사를 하면서 서로를 헐뜯는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규중 칠우 간의 대화와 규중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2 인물의 역할 파악

규중 부인은 규중 칠우들이 서로 옷 만드는 공을 다투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즉, 그들 사이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규중 부인은 바느질 도구를 소유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② 규중 부인은 규중 칠우들이 자신들의 공을 자랑하는 것을 꾸짖는다.
 ③ 규중 부인은 자면서도 규중 칠우들이 자신들이 공을 자랑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④ 규중 부인이 잠을 깨어 공을 자랑하는 규중 칠우를 꾸짖음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유발하게 되고, 규중 부인이 또다시 잠이 들었을 때 규중 칠우들은 평소 부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 즉 인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규중 부인의 등장으로 규중 칠우의 화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3 세부 내용의 파악

'수말 적기로 아가시네 손부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 드리나니'와 '세요의 귀에 질렸으되 낮가죽이 두꺼워 견뎌 만하고'를 통해 감도 할미

는 옷 만들 때 손가락이 바늘에 찢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꼴무임을 알 수 있다.

4 작품의 주제 파악

〈보기〉는 '우리'라는 의식을 강조하면서 각자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한다면 전체의 기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5 어휘의 의미 파악

규중 칠우가 옷을 만드는 공을 두고 다툼을 한다는 것에 착안해 볼 때, '의지공(衣之功)'은 옷을 만드는 공을 의미한다.



고전 소설

031

만복사저포기 _ 김시습

본문 148~14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인간, 사랑, 승리, 전기성

01 ① 02 ④ 03 ④ 04 ⑤ 05 ②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살아 있는 양생과 죽은 혼령인 여인 사이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② '만복사'는 이 글의 공간적 배경으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며,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는 데서도 불교적 색채가 나타난다.
 ③ 양생이 부처님과 저포 놀이에서 승리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 전기성을 엿볼 수 있고,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드러난다.
 ④ '배꽃나무'를 통해 이생의 외로운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을 통해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랑을 보여 준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의 이해

여인이 자신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려 한 것은 여인으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김시습에게 적용하면 단종에 대한 절개, 즉 충성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⑤는 양생과 여인의 사랑의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남의 성사와 결실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서술 방식의 효과 파악

Ⅱ에서 양생은 자신의 처지를 '비취새', '원왕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지금의 외로운 처지에서 벗어나 배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친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4 세부 내용의 이해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마치 산 사람처럼 부처님 앞에서 배필을 얻게 해 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이 삶과 죽음을 연속적인 과정(삶→죽음→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소재의 기능 파악

‘저포 놀이’는 양생이 부처님과 내기를 한 것이다. 양생이 이긴 결과 귀신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③ 저포(주사위) 놀이는 양생과 부처님 사이에서 행해진다. 저포 놀이에 진 부처가 죽은 여인을 양생과 만나게 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저포 놀이를 통해 산 사람인 양생과 죽은 사람인 여인이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다.
 ⑤ 저포 놀이의 승패를 통해 부처에게 내기를 걸 정도로 배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양생의 염원이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 소설 032 이생규장전 _ 김시습

본문 150~15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인연, 저승, 귀신, 흥건적의 난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④

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사필귀정의 주제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최랑은 이생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부모에게 이생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3 다른 장르로의 변용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과 최랑의 혼인을 반대하다가 최랑의 아버지가 매자를 통해 기억을 땃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혼인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최랑의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혼인에 대해 상의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4 삽입 시의 기능 파악

㉠은 이생이 최랑과 다시 만나 혼인하게 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에서 갈등 해결의 단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등장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③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여 형식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있다.
 ⑤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며, 압축적인 내용으로 의미를 강조하여 감동이 지속되게 하고 있다.

5 한자 성어의 이해

㉠은 최랑과 혼인을 하여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니 한바탕 꿈처럼 덧없다

는 의미이다. ‘동상이몽’은 한 이불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일장춘몽(一場春夢)’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인생무상(人生無常)’은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한단지몽(邯鄲之夢)’은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남가일몽(南柯一夢)’은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고전 소설 033 용궁부연록 _ 김시습

본문 152~153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몽유, 용궁, 인생무상

01 ① 02 ④ 03 ④ 04 ①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거실에 있던 한생이 용왕의 부름을 받고 용궁에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한생이 살고 있던 현실 세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현실과 이상 세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③ 한생이 용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작품의 주된 배경은 용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라 볼 수 있다.
 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지만, 인물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는 않다.

2 세부 내용의 파악

용왕은 자신에게 결혼할 시기가 된 딸이 있다고 하며 딸이 살게 될 기회각의 상량문을 써 달라고 한생에게 부탁한 것이다. 한생에게 결혼할 시기가 된 딸과 혼례를 치르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오랫동안 선생의 성화를 들었습니다만”에서 알 수 있다.
 ② ‘박연에 계신 용왕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③ “아래 땅의 어리석은 백성은 ~ 융숭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저는 비천한 선비인데”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생은 윗자리에 앉기를 사양했다.
 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어찌 서로 통할 수 있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수부(水府)까지는 길이 이득하고 물결이 사나워 가기 어렵다는 한생의 말은 준마를 타고 수부로 가는 상황이 독자에게 환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장치라 될 뿐, 김시습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낭관이 공중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나, 말이 공중에서 날았다는 것(㉡)은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괴이한 전기적 요소에 해당한다.

전체 줄거리

발단 시문에 능해 유명해진 한생이 용왕의 초대를 받고 용궁으로 가게 된다. **전개** 용궁에서 용왕의 부탁을 받고 용왕의 딸이 거처할 집을 기념하는 상량문을 짓는다. **절정** 용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 미인들이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운다. 용왕은 옥룡자를 불며 노래하고, 세명의 신 역시 시를 읊는다. 광개사(계)와 현 선생(거북) 역시 춤과 노래로 화답하고, 한생도 시를 지어 올린다. 한생은 용궁의 여러 누각과 갖은 보물들을 구경하고, 용왕이 주는 구슬과 비단을 받아 돌아온다. **결말** 꿈에서 깬 한생이 세상 명리(名利)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만다.



고전 소설

034

홍길동전 _ 허균

본문 154~155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고발, 적서, 관직

01 ⑤

02 ⑤

03 ④

04 ①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에 적서 차별, 관군의 횡포 등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나고 있지만,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길동이 도적의 굴혈에 도착해 우두머리가 되고,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 ② 길동과 도적, 해인사의 중들이 나누는 대화와 이들의 행동 위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길동이 천 근 되는 돌을 들어 옮기는 장면에서 전기적 성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길동의 비범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합천 해인사'라는 구체적 지명을 통해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2 내용의 일치 여부 파악

'길동이 제적(諸賊)을 남편(南便) 대로(大路)로 보내고 제 홀로 중의 복색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굴혈(掘穴)로 돌아오니'를 통해 길동은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은 중으로 변장하여 관군을 따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도적들은 길동을 만나자 '위인이 녹록치 않음을 반겨' 했다.
- ② 도적들은 '벌써 합천 해인사를 쳐 그 재물을 탈취코자' 했으며 길동의 지략을 빌려 해인사를 공격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 ③ 길동은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몰래 입 안에 모래를 넣고 씹었다.
- ④ 해인사의 불목하니는 밖에 우연히 나갔다가 도적들의 공격을 보고 관군에 고발하였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에 따르면 영웅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길동이 절에

동정을 살피려 갈 때 '완연한 재상가의 자제'로서의 면모를 나타내는 것은 길동이 변장이나 변신에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고귀한 혈통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길동은 집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탈출하여 집을 떠나 도적들을 만나기까지 정처없이 떠돌게 되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영웅이 고난을 겪는 단계에 해당한다.
- ② '천첩 소생'이라는 것은 길동이 서자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며, '가중의 천대를 받지 아니하러' 했다는 것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한 당시의 신분 제도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 ③ 길동의 무리가 해인사를 탈취하는 것은 종교계가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며 백미와 같은 재물을 수수하고 금주하지 않는 모습은 문란했던 당시 종교계를 비판하는 것이다.
- ⑤ 길동이 도적들과 함께 해인사의 재물을 성공적으로 탈취하는 것에서 길동이 지닌 뛰어난 능력과 지략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자 성어의 이해

'혼비백산'이란 '혼백이 이리저리 날아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로 길동이 노하자 매우 놀란 스님들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이다.

오답피하기

- ②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이다.
- ③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말한다.
- ⑤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뱃전에 빠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었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한 말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하는 말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홍길동은 조선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 판서의 시비 춘섬의 소생인 서자이다. **전개** 길동은 어려서부터 도술에 능하고 장차 훌륭한게 될 기상을 보였으나, 서자인 탓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품는다. 길동의 재주가 뛰어나자 가족들은 장래에 화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객을 시켜 길동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길동의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길동은 부모의 곁을 떠난다. **위기** 방랑의 길에서 도적의 무리와 힘을 겨루어 두목이 된 길동은 기이한 계책으로 해인사의 보물을 탈취하고 활빈당이라 자처하며 기계와 도술로써 팔도 지방 수령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준다. **절정** 길동은 함경도 감영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하면서 '아무 날 돈과 곡식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라는 방을 붙여 둔다. 함경 감사가 도적을 잡는 데 실패하자 조정에 징계를 올려 좌우 포청으로 하여금 홍길동이라는 대적을 잡으라고 하지만 길동의 도술을 당해낼 수 없다. 결국 홍 판서를 회유하고 길동의 형 인형도 가세하여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병조판서를 제수, 회유하기로 한다. 길동은 서울에 올라와 병조판서가 된다. **결말** 그 뒤 길동은 산수가 수려한 울도국을 발견해 공격하여 울도국 왕이 된다. 마침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삼년상을 치른 뒤 울도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



● 시험 출제 포인트 | 전쟁, 지명

01 ⑤

02 ④

03 ③

04 ⑤

1 내용의 일치 파악

최척은 일본 배에서 조선 말로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옥영이 배에 타고 있으리라 추측했을 뿐, 곧바로 찾아가지는 않았다.

○ 오답피하기

- ①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돈우는 껍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는’에서 알 수 있다.
- ③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에서 알 수 있다.

2 말하기 방식 파악

‘어디 그런 이치가 있던 말인가?’,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등 상대의 부당함을 밝히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상대방을 동정하고 있을 뿐 인짱아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상대방과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촉 땅으로 들어가려는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고사를 인용하지 않았다.
- ⑤ 자신의 의견을 따르면 상대방이 얻게 될 이득은 비단과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것에 해당하지만 손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 작품의 내용 파악

옥영은 최척 없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물에 빠져 죽기를 시도하였다. 최척은 여유문이 죽자 방황하다 촉 땅으로 가 은거하며 살려고 했으나 송우의 설득으로 송우를 따라나서게 된다.

○ 오답피하기

- ① 옥영이 남자 행세를 하며 돈우를 속이고, 최척이 누이동생과 혼인하라는 여유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으로 절개를 지킨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옥영이 돈우와 함께 장사하러 떠돌아다니던 때, 최척도 송우와 함께 장사를 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 ④ 옥영에게는 장륙불이, 최척에게는 송우가 큰 도움을 주었다.
- ⑤ 옥영이 최척을 그리워하며 시를 읊을 때 최척도 옥영을 그리워하며 통소를 불었다.

4 한자 성어의 이해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로

위기에 처해 의지할 곳이 없는 최척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피하기

- ①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아주 외로운 홀몸.
- ④ 진퇴유곡(進退維谷):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이,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짐.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에 사는 최척이 옥영을 사랑하여 약혼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최척이 징발되어 전장에 나가게 된다. 옥영의 부모는 이웃의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옥영은 자살을 시도한다. 이 사실을 안 최척이 전쟁 중에 달려와 두 사람이 드디어 혼인을 하고 아들 몽석을 낳는다. **전개** 이때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최척은 명장(明將)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위기**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항주의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을 내왕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밤 우연히 왜국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옥영과 재회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살며 아들 몽선을 낳는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홍도를 아내로 맞는다. 이듬해 청나라와 명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최척은 명군으로 출전하였다가 청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힌다. **절정** 여기서 명군의 청병으로 강홍립을 따라 조선에서 출전했다가, 역시 청군의 포로가 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결말**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위경을 만나고, 옥영 역시 몽선·홍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해후, 단란한 삶을 누리게 된다.



● 시험 출제 포인트 | 임진왜란, 항서

01 ①

02 ⑤

03 ④

04 ④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조선 향산(香山)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② 주요 배경은 왜국이므로 비현실적 공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왜왕이 항서를 썼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인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배경 묘사가 일부 등장하지만, 이것이 인물의 비극적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 ⑤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2 내용의 일치 파악

‘오늘 연석에 조선 사신을 보니 주식(酒食)을 좋아하오니 부처는 아니라’에서 사명당이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사명당으로 하여금 방식을 주어 물 위에 띄우고 그 못에 놓게 하소서.'라고 신하들이 말하자 왜왕이 이를 통해 사명당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한다.
- ② '그중 어려운 일이 있거든 향산(香山)을 향하여 사배하면 자연 도움이 있으리라.'라는 스승의 말대로 사명당은 어려운 상황마다 조선을 향해 절을 올린다.
- ③ '반일 이 사람을 살려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되리이다'라는 백관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④ 사명당을 죽이라고 채홍이 말하자 '왜왕이 그 말을 옳이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들었다.

3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왜왕은 '예부 상서 한자경'의 간청에 의해 항서를 쓴 것이지, 모든 신하가 조선에 항서를 쓸 것을 간청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사명당이 왜국에서 당할 일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사명당 스승 또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임이 드러난다.
- ② 왜왕은 사명당을 시험하고 죽이기 위해 여러 사함을 지시하지만, 지시한 대로 모두 따라도 해를 입지 않는 사명당의 모습에서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 겁을 먹지 않고 왜왕에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명당의 모습은 왜국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왜왕이 사명당의 능력을 보고 놀라 조선에 항서를 쓰는 모습은 역사적 사실과는 어긋나지만, 패전으로 인한 아픔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A]는 사명당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명당이 지닌 왜국에 대한 적개심과 연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그대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라는 말에 대한 행동이므로 사명당의 법력을 나타낸다.
- ② [A]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왜왕이 항서를 썼으므로 왜왕이 조선에 항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③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사배하면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명당 스승의 예언처럼 사명당이 사배를 올리자 직면한 상황이 해결된다.
- ⑤ 신하들은 사명당을 죽이기 위해 불에 달군 철마에 타게 한 것이므로, 사명당이 죽지 않은 것은 신하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체 줄거리

도입 우의정 최일경이 선조 대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왜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노여움을 사고 귀양을 가게 된다. **전개** 삼 년 후, 왜군이 조선 침략하고 이순신은 거북선으로써 항전하나 적장 마홍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둔다. 강홍립이 출병하여 마홍을 죽이고 전장에서 승리하지만 정총남이 출진했다가 전사하여 왕은 피난길에 오르고 만다. 전한 곡산 김덕령은 신술을 부려 왜군을 대파하고 최일경이 돌아와 김응서를 천거한다. 한편, 유성룡은 명나라에 청병하러 가서 이여송과 귀국하지만, 이여송은 머뭇거리다가 원병에 나선다. **절정** 김응서는 기생 월전을 통해 왜장 소서를 살해하고, 이여송이 청정의 목을 베지만 김덕령은 죽음을 당한다. **결말** 그후 임란을 보복하기 위해 강홍립과 김응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왜국 정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결국 사명당이 왜왕을 굴복시키고 돌아온다.



037

창선감의록 _ 조성기

●시험 출제 포인트 | 권선징악, 개과천선, 가정, 이복형제

01 ② 02 ③ 03 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심씨가 화진과 소저를 포함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화춘이 합세하여 화진과 소저를 탄압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물들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논평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치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뿐, 비현실적 공간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해학과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대화의 의미 파악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눈이 큰 죄 아니'고'에서 소저와 취선이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불측한 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정을 나눈 것이라고 소저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베푸소서.'라며 소저를 용서해 줄 것을 애원하고 있다.
- ②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에서 드러난다.
- ④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에서 드러난다.

3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이해

고모가 돌아오면 크게 꾸짖을 것이라는 화춘의 말은 자신이 해를 입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로, 선한 인물들이 악한 인물과의 대립에서 승리할 것임을 추측하게 하는 말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신이 홀대받고 있더라도 큰집, 작은집 모두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소저의 착한 성품이 드러난다.
- ② 제목에서 드러나는 '감의'의 의미처럼 변명하지 않고 매를 맞는 화진의 모습에서 당시의 독자들은 화진의 의리에 감복하게 되었을 것이다.
- ③ 이 소설에서는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소저와 취선의 말을 꾸며 화춘에게 말하는 심씨의 모습은 악한 인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④ 심씨의 모함만 믿고 화춘이 화진에게 매를 가하는 모습에서 착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병부상서 화옥(花郁)은 심 부인, 요 부인, 정 부인 등 부인이 셋 있었다. 요 부인은 딸 태강(태강)을 낳고 일찍 죽었고, 정 부인이 낳은 아들 진(珍)은 매우 영특하였으나, 그가 장성하기 전에 정 부인이 죽는다. 심 부인이 낳은 아들 춘(椿)은 이복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맏이었으나 사람됨이 용렬하였으므로 화옥은 진을 편애하여 심 부인과 춘의 불만을 사게 된다. **전개** 화옥은 조정에 간신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맏아들 춘을 성혼시켰지만 딸 빙선과 아들 진은 정 혼만 시킨 채 성혼시키지 전에 죽는다. 화옥이 죽은 뒤 심 부인과 화춘은 갖은 방법으로 화진과 그의 아내를 학대한다. **위기** 화진은 과거에 장원하여 벼슬을 하지만, 동생의 출세를 시기한 화춘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도 내쫓긴다. **절정** 유배지에서 곽공(郭公)에게 병서를 배운 화진은 백의종군하여 해적 서산해를 토벌하고 공을 세운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조정에서 그를 정남대원수(征南大元帥)에 봉하고 화진은 남방을 평정한다. 그 공으로 화진은 진국공(晉國公)의 봉작을 받는다. **결말** 한 편 심 부인과 화춘도 개과천산하여 착한 사람이 되었고 내쫓겼던 화진의 아내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038

구운몽 _ 김만중

본문 162~163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깨달음, 역설적, 인물, 구름

01 ③ 02 ⑤ 03 ⑤ 04 ④

1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감상

이 글은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를 가지고, 두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자각과 불도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꿈과 현실의 이중 구조가 주제의 형상화에 유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피하기

- ① '양소유'가 꿈의 세계인 인간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이다.
- ② <보기>는 '주인공(양소유)이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들을 꿈에서 실현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결국 한바탕 허망한 꿈인 줄을 깨닫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불교의 공(空) 사상과 연결된다.
- ④ 이 글은 '현실(천상) → 꿈(지상) → 현실(천상)'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인간 세계에서의 부귀영화는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소유(少游)'라는 이름의 상징적 의미는 '잠시 논다'는 뜻으로 인생무상의 주제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2 말하기 방식의 파악

호승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육관대사는 현실에서의 자신과 성진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성진에게 우회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진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3 구절의 의미 및 기능 파악

꿈과 현실에 대한 육관대사와 성진의 인식은 서로 다르다. 성진은 꿈과 현실

실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육관대사는 꿈과 현실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육관대사가 장자의 호접몽을 인용한 이유는, 성진이 꿈과 현실이 같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피하기

- ① '사부'가 육관대사인 양소유는 누구인지 몰라보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인 요소로, 고전 소설의 전기성과 관련된다.
- ③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 ④ 성진이 인간 부귀에 대해 깨달은 바를 묻고 있다.

4 지시 대상의 이해

㉠, ㉡, ㉢, ㉣는 '육관대사'를 가리키며, ㉤는 '양소유'를 가리킨다.

전체 줄거리

발단 당나라 때 천축으로부터 육관대사라는 고승이 중국에 와서 큰 절을 세우고 제자를 모아 불법을 베푸는데, 동정호의 용왕도 이에 참석한다.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가게 되었는데, 용왕의 용궁한 대접에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성진은 팔선녀를 만나 희롱하다 돌아온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 영화만 생각한다. 끝내 그는 죄를 얻어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소유가 된다. **전개** 양소유는 15세에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진여사의 채봉을 만나 약혼을 한다. 얼마 후 양소유는 낙양 천진교의 시회(詩會)에 참석하였다가 기생 계섬월과 인연을 맺는다. 과거에 급제한 양소유는 정사도의 딸 정경패와 혼인을 하게 된다. 정경패는 양소유가 자신에게 준 모욕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비 가춘으로 하여금 선녀처럼 꾸며 양소유를 유혹하여 두 사람이 인연을 맺도록 한다. **위기** 이때 하북의 세 왕이 역모를 꾸미고, 양소유가 절도사로 나가 이들을 진압한다. 돌아오는 길에 하북의 명기 적경홍과 인연을 맺고 상경하여 예부상서가 되었다. 그때 토번왕이 쳐들어 와서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진중에서 토번왕이 보낸 여자 자객 심요연과 인연을 맺는다. 양소유는 백룡담에서 용왕의 딸인 백룡파를 도와주고 그녀와 또 인연을 맺는다. 토번왕을 물리치고 돌아온 양소유는 위국공에 봉하여지고, 영양공주 난양공주와 혼인한다. 이후 양소유는 고향으로 돌아와 2처 6첩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절정** 승상의 벼슬에서도 물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그때 호승이 찾아와 문답하는 가운데 꿈에서 깨어나 육관대사의 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 **결말** 본래의 성진으로 돌아와 전지를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팔선녀가 찾아와 대사의 가르침을 구한다. 이에 대사가 설법을 베풀니, 성진과 팔선녀는 본성을 깨우치고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039

사씨남정기 _ 김만중

본문 164~165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선, 욕심, 권선징악

01 ① 02 ② 03 ① 04 ① 05 ④

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는 비현실적인 전기성, 즉 현실과 동떨어진 기이한 특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② 작가는 사씨와 교씨의 대립을 통해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일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즉, 이 글에서 사씨는 인현왕후를, 교씨는 장희빈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풍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부장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제재로 하고 있다.
- ④ 결국 악인 교씨가 징벌을 받는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사필귀정의 주제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사씨와 교씨로 대변되는 선악의 갈등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으며, 작가는 교씨의 욕망과 대비되는 사씨의 덕성과 인내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②는 작품 내부의 요소를 중점으로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작품에 드러난 내적 요소 외에 작가, 시대, 독자를 중심으로 감상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풍속 등 현실 세계가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주목한 반영론적 관점이다.
- ③, ④ 작품에는 작가의 체험이나 사상,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작품이 작가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중시하는 표현론적 관점이다.

3 말하기 방식 파악

[A]에서 매괴는 부인이 병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비록 첩이라도 정실부인과 다름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씨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다.

4 속담의 이해

교씨는 자신이 지은 악행을 생각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잠을 이루는 말인 ①이 적절하다.

5 지시 대상 파악

㉠, ㉡, ㉢, ㉣는 유연수를 가리키고, ㉤는 교씨를 가리킨다.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의 명신 유현은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을 한다. **전개**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자 사씨는 유 한림에게 후실을 얻어 후사를 이으라고 권하고, 유 한림은 어쩔 수 없이 교씨를 받아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위기** 교씨는 문객(門客)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한다.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암에서 생활한다. **절정** 한편 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결말**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씨를 만나 영화를 누리며 산다.



고전 소설

040

박씨전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수신제가, 청군, 자금심

01 ① 02 ③ 03 ② 04 ④

1 내용의 사실적 이해

울대가 동생의 죽음으로 통곡하고 있을 때, 제장이 울대를 위로하며 박씨는 당해 낼 수가 없으니 퇴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고, 울대는 왕비와 세자·대군, 장안 물색을 거두어 의주로 돌아가려 하자 박씨는 계화로 하여금 '왕비를 뒤흔들고 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함몰할 것'이라고 하면서 울대를 향해 왕비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박씨가 동생을 잃은 울대를 측은하게 여기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 ③ 계화는 박씨를 대신하여 울대를 비롯한 오랑캐 무리를 혼내주고 있다.
- ④ 박씨가 왕비를 구해내는 것은 맞지만, 이를 대신해 부녀자들을 의주로 보내려 한 것은 아니다.
- ⑤ 울대가 동생을 잃고 이를 설욕하기 위해 박씨를 찾아온 것이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감상

〈보기 1〉의 핵심 내용은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민중의 보상 심리가 반영되었다는 점(ㄱ),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는 점(ㄴ)이다.

3 한자 성어의 이해

㉠에서는 계화가 주문을 외워 오랑캐를 크게 혼내는 모습을 보고 호장이 몹시 놀라고 있다. '대경失色(大驚失色)'은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는 뜻으로, 계화의 도술에 깜짝 놀라 겁을 먹은 호장의 상황을 드러낸다.

오답피하기

- ① '꺄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백중지세(伯仲之勢)'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이르는 말이다.
- ④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천재일우(千載一遇)'는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이다.

4 인물의 정서 및 상황 파악

㉠은 울대에게 잡혀 고국을 억지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으로, 이들은 언제 고국에 돌아올지 모른 채, 불모로 끌려가는 것이다. ㉣는 병자호란 패배 후 작자가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에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까마귀'를 제재로 하여 어버이에 대한 효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② 임금의 신임을 잃고 귀양을 가는 작자가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구름에 의탁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세속을 벗어나서 홀로 초암에 앉아 그윽한 음악의 세계에 침잠하는 화

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좇으려 하는 삶의 세계를 드러낸 작품이다.
 ⑤ 중인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남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인조대왕 시절 한양에 살고 있는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늦게 시백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사람됨이 총명하고 비범하였다. 어느 날 박 처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득춘과 더불어 신기를 겨루며 놀다가 시백을 청하여 보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이득춘은 시백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가서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혼인시킨다. 시백은 첫날밤에 박씨가 천하에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와 합방하지 않고 미워한다.
전개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후원에다 혼자 거처할 집을 지어 달라 하고 이름을 피화당이라 짓는다. 박씨는 이득춘이 급히 입어야 할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짓는 재주와, 비루 먹은 말을 싸게 사서 잘 길러 중국 사신에게 비싼 값에 팔아 재산을 늘리는 신이한 능력을 보인다. 또 박씨는 시백을 과거에 급제시킨다. 이후 박씨는 액운을 다하여 아버지가 가르쳐 준 주문을 외워 절세가인으로 탈갑한다. **위기** 이때 호왕이 조선을 침공하기 앞서 임경업과 시백을 죽이려고 기룡대라는 여자를 첩자로 보낸다. 박씨는 기룡대의 정체를 밝히고 혼을 내어 쫓아버린다. 두 장군의 암살에 실패한 호왕은 용골대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치게 한다. 천기를 보고 이를 안 박씨는 시백을 통하여 왕에게 호병이 침공하였으니 동쪽을 방비 하도록 청하나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절정** 마침내 호병의 침공으로 사직이 위태로워지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지만 결국 항복하겠다는 글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잡혀 죽었으나 오직 박씨의 피화당에 모인 부녀자들만은 무사하였다. 이를 안 적장 용골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그의 형 용골대도 크게 혼을 내 준다. 용골대는 인질들을 데리고 퇴군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또 한번 대패한다. **결말** 왕은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박씨를 총렬 부인에 봉한다.



고전 소설

041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본문 168~16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적강, 충신, 조력자

01 ⑤

02 ③

03 ③

1 내용의 일치 파악

‘원수 괴이해 말을 잠깐 멈추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변수가에 비쳐 있었다.’에서 원수는 하늘과 별을 관찰해 천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안 것이지, 전갈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천극한의 머리 떨어지고 천사마 닿는 곳에 십만 군병이 팔공산 초목이 구시월 만나듯이 순식간에 없어졌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 정병만을 가리어 급히 도성으로 들어가니’에서 알 수 있다.
- ③ ‘다급히 옥새를 품에 품고 말 한 필을 잡아타고 었어지며 자빠지며 복문으로 빠져나와 변수가로 도망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한담이 호령하며 달려들어 태자 일행을 잡아 호왕(胡王)에게 맡긴 후’에서 알 수 있다.

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보기〉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는 천자가 처한 비극적 상황, ㉡에서는 천사마의 비범한 능력, ㉢에서는 원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다.

3 준거를 통한 작품 이해

한담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항서를 쓰고자 했으나 단지 종이와 붓이 없어 쓰지 못하는 천자의 모습은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무능력한 왕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천사마 또한 원수와 함께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 ② 원수가 천극한을 제압하는 장면에서 원수의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 ④ 옥새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천자를 물리치고 한담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신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⑤ 원수가 결국 한담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보여 주므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에서 정언주부의 벼슬을 하던 유심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남악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꾸 뒤 아들을 얻어 충렬이라 이름 짓는다. **전개** 이때, 조정에 역심을 품을 정한담, 최일귀가 옥관 도사의 도움으로 유심을 귀양 보내고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충렬 모자를 살해하려 한다. 충렬은 가까스로 정한담의 마수에서 벗어난 뒤, 재상 강희주를 만나 사위가 된다. **위기**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고자 상소를 올렸으나 정한담의 모양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 역시 뽕뽕이 흩어진다. 충렬은 백룡사 노승에게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린다. **절정** 정한담은 천자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 내려 하고, 이때 충렬이 나타나 천자를 구하고 단신으로 반란군을 제압한다. **결말** 충렬은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여 개선한다. 이별한 가족을 찾고 정한담 일파를 물리친 뒤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린다.



고전 소설

042

홍계월전 _ 작자 미상

본문 170~171쪽

●시험 출제 포인트 | 가부장적, 계월(평국), 남장

01 ④

02 ③

03 ②

04 ⑤

1 작품의 특징 파악

이 글은 허구적인 인물인 홍계월의 무용담을 그린 소설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작품의 주제 의식 파악

이 글은 여 주인공인 홍계월을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 자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남녀의 헛된 욕심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능력 차에 따른 역할 분배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가사 분담은 이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⑤ 위정자의 결단력을 강조하고 있는 글은 아니다.

3 다른 작품과의 비교

〈보기〉에서 금방울은 허물을 벗기 전의 모습일 때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에서 금방울은 위험에 처한 해룡을 도와주고 있다.
 ③ 이 글의 보국은 홍계월의 명령을 받고 있다.
 ④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소설의 독자층에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⑤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소설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4 인물의 심리 파악

보국은 자신이 남성으로서 여성인 계월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데 계월이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자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월에 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 때 홍계월은 홍 시랑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간신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고비에 빠진다. **전개** 계월은 죽을 위기에서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남장을 한 채로 그 집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장원 급제를 한다. **위기** 외적의 침입에 홍계월은 대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전하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 패하자 계월이 나서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부모도 다시 만나게 된다. **절정** 홍계월은 자신이 여자임을 천자에게 밝히고, 천자는 벼슬을 그대로 둔 채 중매를 나서 여보국과 혼인시키나 여보국과 홍계월은 갈등하게 된다. **결말** 반란군이 일어나자 홍계월과 여보국은 출전하게 되고 홍계월이 여보국을 위험에서 구해 줌으로써 이들 부부는 다시 금실을 찾게 된다.



043

춘향전 _ 작자 미상

본문 172~173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정절, 이별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③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춘향과 몽룡의 이별 장면으로, 등장인물 사이에서 삼각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갈등의 심화도 예고되어 있지 않다.

2 다른 장르로의 변용

방자는 춘향과 몽룡이 이별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사또가 알게 되면 몽룡과 춘향 자신, 춘향의 어머니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둘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방자가 춘향과 몽룡의 처지를 동정하여 둘이 이별하는 시간이나 길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춘향은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몽룡의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향의 심정을 드러내기에는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란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을 비유하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절치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인다는 말이다.
 ③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나서야 할 일에 간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을 이르는 말이다.
 ④ 극악무도: 더할 수 없이 지극히 악하고 도리에 어긋남을 뜻한다.
 ⑤ 유구무언: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4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춘향은 죽어서 이별하는 것과 살아서 이별하는 것의 차이를 들어 자신의 애타고 역울한 마음을 드러내며 강하게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고 있다.
 ② 춘향은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몽룡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다.
 ④ 신의 없음을 꾸짖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 발상 및 표현 파악

몽룡은 춘향과 이별하는 슬픔을 ㉠과 같이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은 흐르는 물에 자신의 마음을 이입하여 표현한 ㉡이다.

오답피하기

- ① '작은 거인'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산의 풍경을 그림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③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인용한 풍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푸른 웃음소리'라는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6 유사한 대상 찾기

㉢는 몽룡의 어머니, ㉣는 이몽룡, ㉤는 이몽룡, ㉥는 일반적인 양반 가문의 자식, ㉦는 춘향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몽룡을 가리키는 ㉣와 ㉤를 묶는 것이 적절하다.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구경 나왔다가 향단과 함께 그네를 뛰는 춘향을 보게 되고, 그 자태에 반해서 그날 밤 춘향을 찾아간다. **전개** 사또 몰래 춘향을 찾아간 이 도령은 월매 앞에서 춘향과의 백년가약을 맹세하고 허락을 받아 낸다. 둘은 밤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지낸다. **위기** 그러던 중 이 부사가 서울로 영전하게 되자, 춘향과 몽룡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다. 한편 새로 부임한 변 사또는 호색가여서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한다. **절정** 춘향은 죽기를 맹세하고 변 사또에게 항거하다가 형장을 맞고 하옥된다. 서울로 올라간 이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결말** 암행어사 이몽룡은 변 사또를 봉고파직하고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여 부부로서 부귀영화를 함께 누린다.



●시험 출제 포인트 | 인격, 남녀평등, 인간애, 사람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①

1 작품의 특징 이해

이 글은 광문의 신의 있는 생활 자세와 허욕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을 뿐, 모순된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작가의 의도 파악

〈보기〉를 통해 도둑질로 명성을 흠치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다투는 당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을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당시 양반을 사고파는 어지러운 세태를 꾸짖으면서 정직하고 인정 있으며 소탈한 인간상을 지닌 광문을 통해 인간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3 인물의 성격 파악

약국 부자는 광문이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지만, 오해가 풀리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광문에게 사과하고 있다.

4 인물에 대한 평가

광문은 여자들도 사내와 마찬가지로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인물의 내면보다 외양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약방 주인의 의심을 받아도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신의가 있고 성실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병든 거지 아이를 위해 밥을 빌어 오고 버려진 거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 주는 것으로 보아, 따뜻한 인간애와 인정을 지니고 있으며 의리를 지키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사내뿐 아니라 여자도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라고 여기는 태도로 보아, 남녀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필요 없다고 사양하는 것으로 보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자유롭게 사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한자 성어의 이해

①에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남녀가 인간으로서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남녀평등 사상이 담겨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남존여비(男尊女卑)’는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을 의미한다.
- ③ ‘미인박명(美人薄命)’은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④ ‘동가홍상(同價紅裳)’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오륜(五倫)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광문은 종루 저잣거리에서 밥을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의 우두머리이다. 광문은 거지 아이들과 움막을 짓고 살아간다. **전개 1** 어느 날 동료들이 모두 걸식을 나간 사이에 광문은 병들어 누워 있는 아이를 혼자서 간호하다가 그 아이가 죽어 버리자 동료들의 의심을 받게 되어 거기서 도망친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날 거지들이 버린 아이의 시체를 거적때기에 싸서 서문 밖 무덤에 묻어 준다. 이 일을 목격한 ‘주인 영감’은 광문이 의리가 있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판단했다. ‘주인 영감’은 광문의 행동을 가상히 여겨 그를 어느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전개 2** 약방 주인은 광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친구와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하였다. 그래서 공경의 문하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광문을 이야깃거리로 삼았고, 몇 달 사이에 사대부들이 광문의 이름을 모두 옛날 훌륭한 사람의 이름처럼 알게 되었다. 광문은 자신이 추천 물골을 지냈다고 생각해 나이 마흔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안에서도 가장 이름난 운심이란 기생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운심은 함부로 춤을 추지 않을 만큼 자존심이 강했는데, 광문의 높은 인덕에 감동해 자리에서 일어나 광문을 위해 춤을 추었다.



●시험 출제 포인트 | 비판, 정당함, 마음, 만족, 안빈낙도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⑤

1 작품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일반적인 소설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사 과정이 전개되고 있으며, 선굴자와 자목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우도(友道)와 이상적인 인간이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당시 양반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보이기는 하지만 골계미와 비장미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② 선굴자와 자목이 서로 갈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파국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자목과 선굴자의 갈등이 보이지만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서 ‘엄 행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감상

이 글은 바람직한 사림의 도와 엄 행수의 무실역행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굴자가 당시의 사대부들과 사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교유의 도가 선굴자가 생각하는 교유의 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글에서 양반의 무능력과 관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다.

3 내용의 사실적 이해

⑤는 상대방을 은근히 치켜세우는 것으로, 선굴자가 자목에게 말한 세속적인 벗 사림의 방식에 해당한다.

4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선굴자는 엄 행수의 몸가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자신이 엄 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구절의 의미 파악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은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실천궁행(실제로 몸소 이행함)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 ① 자목은 자신의 스승인 선굴자가 신분이 미천한 엄 행수와 교분을 맺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선굴자는 잇속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아첨하는 잘못된 교우(交友)의 도를 비유적으로 언급한 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우의 도인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체면과 외양을 중시하는 자목은 그러한 교우의 도는 장사치나 하인들의 만남에나 있는 것이라며 신분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 ④ 신분과 외양에 얽매이지 않는 선굴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엄 행수는 마을의 동을 저 나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미천한 사람인데 선굴자(이덕무의 호)는 그에게 예덕이라는 호까지 지어 주고 선생으로 대접하며 친하게 지냈다. **전개 1** 선굴자의 제자 자목은 스승이 사대부와 교유하지 않고 비천한 엄 행수와 벗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 **전개 2** 그러나 선굴자는 이해로 사귀는 시교(市交)와 아첨으로 사귀는 면교(面交)가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사귀고 덕을 벗하는 도의의 교를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결말** 그는 이어서 엄 행수는 신분이 미천하고 하는 일은 더럽지만, 마음이나 행동은 향기롭고 의롭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으로 일컬으며 도의의 교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고전 소설

046

허생전 _ 박지원

본문 178~179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경제, 이상향, 비판, 사대부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②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허생과 군도, 허생과 변 씨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허생의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빈 섬에서의 이상향 건설과 같은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의 외부 존재이다.

2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감상

허생이 섬을 떠나올 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

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라고 말한 것에서, 허생 역시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은 따르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 변 씨와 생계조차 잇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한 양반 계층 허생의 교유는 당대 신분 질서의 동요를 보여 준다.
- ② 변 씨는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새로운 신분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③ 변산의 군도들은 지배층의 수탈을 피해 도적의 무리가 된 사람들로, 이러한 도적의 무리들은 지배층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 ⑤ 허생이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당쟁만 일삼는 양반 식자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읽을 수 있다.

3 내용의 사실적 이해

허생은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에 들어가 농사와 무역을 통해 이상국 건설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변 씨는 허생이 빌린 돈의 열 배로 갚자 상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심본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으려 한 것이지 허생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허생은 변 씨가 돌려주는 돈도 받지 않고 있다.
- ③ 허생은 섬에서 나올 때에 글을 아는 이들을 ‘화근’이라고 하며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군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허생의 제안에 군도들은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비웃고 믿지 않다가 허생이 삼십 만냥의 돈을 가지고 오자 허생의 비범함에 탄복하여 ‘장군’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4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이 글은 허생의 기이한 행적을 통해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부실한 정치·사회 구조를 폭로하고 있고, <보기>는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고 착취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현실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자연에서의 풍류는 다루고 있지 않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농민들의 강인한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이 글과 <보기>에서 구체적 지명은 ‘변산, 서울’이 나타나지만 두 곳 모두 백성들의 삶이 고달픈 부정적 현실이다.
-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직접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5 한자 성어의 이해

‘가렴주구(苛斂誅求)’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은 무역을 통해 물자 과부족의 모순을 해소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발본색원(拔本塞源)’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도적의 무리를 잡고자 하는 군사들의 모습과 어울린다.
- ③ ‘장유유서(長幼有序)’란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다는 말로, 먼저 난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말과 어울린다.

- ④ '식자우환(識字憂患)'이란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으로,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울린다.
- ⑤ '고립무원(孤立無援)'이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로,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의 상황과 어울린다.

전체 줄거리

발단 허생은 남산 밑 목적골의 선비로 10년을 계획하고 독서에 매진하던 중, 가난을 못 이긴 아내의 질책을 듣고 공부를 중단하고 집을 나간다.

전개 허생은 한양 최고의 부자 변 씨(卞氏)를 찾아가 만 냥을 빌려 과일과 말총을 매점 매석하여 엄청난 돈을 번 다음, 변산에 군도들을 설득시켜 미리 보아 둔 빈 섬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한다. 농사와 무역을 통해 큰돈을 번 허생은 이상국 건설 시험을 마친 뒤 섬에서 나와 나라 안의 빈민들을 구제한다. 허생은 한양으로 돌아와 십만 냥을 변 씨에게 갚는데 그후 두 사람은 벗이 된다. **위기** 변 씨가 이완이라는 정승을 허생에게 소개하고 이완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조연을 허생에게 구한다.

절정 허생은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는데 이완은 모두 어렵다고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허생이 이완을 칼로 찌르려고 하자 이완은 달아난다.

결말 이튿날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허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047

호질 _ 박지원

본문 180~18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양반, 유학자, 열녀, 위선적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④

1 작품의 특징 파악

이 글에서 범은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의인화된 인물로, 작가는 범을 통해 당대 지배 계층의 위선과 비도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갈등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범을 통해 북곽 선생으로 대변되는 선비 계층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부도덕한 악행을 꼬집고 있다.
- ②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그 고장 동쪽에는~'과 같이 앞부분에서 서술자가 북곽 선생과 동리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③ 북곽 선생과 범의 대화를 통해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위선,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범이라는 의인화된 대상을 내세워 인간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2 비판 대상의 파악

이 글은 '북곽 선생'으로 대변되는 양반 지배 계층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신분 제도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3 인물들의 관계 파악

범에게 꾸짖음을 들던 북곽 선생이 범이 사라진 뒤 다시 농부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북곽 선생은 표면적으로는 고매한 학자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 삽입 시의 역할 파악

명망 있는 학자가 지은 시가 고작 남녀 간의 말장난과 희롱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북곽 선생의 명성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는 북곽 선생을 희화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답피하기

- ①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동리자의 아들들이 각기 성이 다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인물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유학자로서의 명망과 모순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황의 마무리나 새로운 사건의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

5 한자 성어의 이해

㉠은 북곽 선생이 살아남기 위해 범에게 아첨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뜻하는 ②와 어울린다.

오답피하기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이르는 말이다.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 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6 표현 방식의 파악

㉠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유자(양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조롱하여 비판하고 있다. ④도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에 대한 비판과 도전 의식이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춘향전'에 나오는 표현으로 변 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비꼬아 표현하고 있다.
- ② 끝 글자만 맞춘 무의미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여 당황하는 인물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지닌 특징을 '새'에 비유하여 시집살이가 맵고 고됨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범이 창귀들과 함께 어떤 것을 먹이로 할지 의논을 한다. 범은 창귀들이 제안한 의원과 무당을 마다하다가 선비를 추천하자 화를 낸다.

전개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북곽 선생은 밤늦게 지조 높은 과부로 소문난 동리자의 방에 있다가 그 아들들의 추격을 받게 된다. **위기** 북곽 선생은 도망을 가다가 범을 만나게 되고, 살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절정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한 범은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인간의 잘못을 꾸짖는다. **결말**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범은 자취를 감춰 버린다. 날이 새어 발 갈려 나온 농부가 북곽 선생의 모습을 보고 놀라 연유를 물으니 또다시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 시험 출제 포인트 | 신분, 소극적, 소극적

01 ② 02 ⑤ 03 ⑤ 04 ②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소녀의 말과 편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요약적 진술에 의해 그녀의 집안 사정이나 심생이 북한산성에 가게 된 계기가 밝혀지고 있다.

2 말하기 전략 파악

청자인 부모의 요구와 자신의 선택이 일치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오답피하기

- ① 심생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② 소녀는 자신이 한낱 중인의 딸에 불과하고 뛰어난 용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 양반댁 도령인 심생이 치성을 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개에게 물린 꿩'이 된단든지 '술개를 보고 매로 여긴다'든지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누명을 쓸 것이며, 음보(陰報)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소재의 기능과 의미 파악

심생은 소녀의 편지를 읽고 붓을 던지고 무관이 되어 벼슬길에 오르지만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와 뜻을 확고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피하기

- ① '길이 이별하웁고, 병으로 누워 죽음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다.
- ② '더욱 글공부에 힘쓰시어 일찍이 청운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
- ③ 세 가지 큰 한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심생은 이 편지를 읽고 울음과 눈물을 쏟고 있다.

4 창의적 사고와 변용

〈보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서술자에게 들려준 '매화외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심생은 보쌈을 당해 가는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뒤를 따라가고, 소녀가 중인의 딸임을 알게 된다. **전개** 심생은 매일 밤 소녀의 집을 찾아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발길을 돌린다. 그렇게 스무 날째가 되던 날 소녀는 거짓으로 심생을 단념시키고자 한다. **위기** 그럼에도 심생은 변함없이 소녀를 찾아오고, 소녀는 서른 날째 되는 날 심생을 부모에게 소개하며 부부의 연을 맺는다. **절정** 심생은 가족 몰래 소녀를 만나다 의심을 사서 북한산성으로 보내지고, 이에 병이 걸린 소녀가 유서를 남기고 죽는다. **결말** 이에 실의에 빠진 심생은 문과를 포기하고 무인으로 살다가 죽는다.



● 시험 출제 포인트 | 과시(科詩), 과거 시험, 물질주의적

01 ⑤ 02 ③ 03 ① 04 ①

1 사실적 내용의 이해

'광역의 글이 비록 수준은 높지 못했으나'라고 평가하고 있고, 유광역을 따르는 문학생들이 많았다는 언급은 없다.

○ 오답피하기

- ① '그러나 그는 지체가 낮아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② '말 한 필, 종 한 사람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유광역은 스스로 '나야말로 과거 법규를 해치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④ '채화를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글의 차이를 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이 글에서도 도입부에 유광역의 출신지와 가계, 성장 배경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유광역의 일생 전체가 아닌 유광역의 비리 행각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 ② 유광역은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인물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재력을 갖춘 양반 자제의 글을 대신 지어 주고 돈을 버는 유광역의 행적이 열거되어 있다.
- ⑤ 매화외사의 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경시관이 경상 감사에게 글재주가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경상 감사가 유광역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경시관이 자신이 그를 장원으로 뽑겠다고 말하는데, 경상 감사가 그대의 감식안으로 알아볼 수 있겠냐고 비아냥댄다. 이로써 이 둘이 내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감식안을 의심하며 증명해 보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4 중심 내용의 이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라는 것은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나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유광역이라는 인물에게 돈을 주고 그가 권세를 누리도록 만든 사람들, 나아가 그렇게 만든 사회 역시 부도덕한 것이라는 지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 오답피하기

- ② 경시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 ③, ④ 과거 제도가 지닌 폐단을 해결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기보다는 부정을 일삼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유광역은 가난하고 지체가 낮으나 과시(科詩)를 잘 하기로 유명세를 얻는다. 이에 후한 대접을 받고 부잣집 양반 자제의 글을 대신 지어 준다. **전개** 유광역은 돈을 받고 과시(科詩)를 써 주는 부정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 어느날 경시관이 경상 감사에게 영남 최고의 글재주를 가진 이를 묻고, 유광역의 이름을 듣게 된다. 이들은 유광역의 글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내기를 하기에 이른다. **위기** 우수 답안을 거둬들이고, 유광역의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경시관은 우수 답안들이 유광역의 것임을 확인한다. **절정** 경시관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 유광역을 잡아 오라는 명을 내린다. **결말** 유광역은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사람들은 이를 애석해한다.



고전 소설

050

운영전 _ 작자 미상

본문 186~187쪽

●시험 출제 포인트 | 사회, 환상, 비극적

01 ⑤ 02 ② 03 ①

1 서술 방식의 이해

안평 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키고 궁녀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라는 허구성을 더해 봉건 사회의 비인간적 폐습과 제도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실학적 안목으로 비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권선징악의 고전적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 ③ 신분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봉건 사회의 폐습에 의해 억압된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④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 유영이 등장하는 전체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미루어 알기

운영이 김 진사와 자신의 이야기를 유영에게 전달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용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자주 나타난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운영이 안평 대군에게 정절을 잃는 것을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평 대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결백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② 안평 대군이 김 진사를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김 진사와 운영의 관계를 의심하고 난 이후이다. 이는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 자유연애에 대한 억압이라 볼 수 있다.
- ③ 궁녀의 신분인 운영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 ④ 자유로운 연애가 엄격하게 금지된 궁녀의 신분에게 인간적 자연스러운 감정인 사랑이 죄라고 표현한 것이다.

⑤ 운영의 일과 관련하여 당사자 말고도 수많은 궁녀들이 문초를 당한 것은 권력자의 억압이나 횡포로 볼 수 있다. 서궁의 궁녀들 역시 운영과 같은 처지로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선비 유영은 안평 대군의 옛집 수성궁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잠이 들고,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전개** 운영은 안평 대군의 궁녀로, 어느 가을 수성궁을 찾아온 김 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운영이 궁녀의 신분임을 자각하여 은밀히 사랑을 하게 된다. **위기** 의심을 받게 된 두 사람은 결국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데, 김 진사의 종 특이가 고발하여 발각되고 운영은 옥에 갇히게 된다. **절정** 결국 운영은 목을 매어 자결하고 이를 슬퍼하던 김 진사 또한 세상을 등진다. 염라대왕은 이들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 준다. 이들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수성궁에 들러 유영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말** 유영이 잠에서 깨고, 그 앞에는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기록한 책만 남아 있었다. 유영은 그것을 때때로 꺼내보며 망연자실하고, 후에 명산을 찾아다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친다.



고전 소설

051

소대성전 _ 작자 미상

본문 188~189쪽

●시험 출제 포인트 | 도술, 비범함, 위기

01 ④ 02 ④ 03 ① 04 ④

1 서술 방식의 이해

소대성을 사위로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왕 부인과 아들들, 왕 부인의 명을 받고 소대성을 해치려는 인물 조영이 등장하여 소대성과 갈등한다. 주동 인물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극명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대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고도 볼 수 없다.
- ② 시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주동 인물인 소대성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두 인물이 각각 겪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 ⑤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비판적 평가

〈보기〉의 (가)에서는 소대성이 우리 속담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음을, (나)에서는 언론 소설을 구송하는 전기수가 '소대성전'을 대중에게 읽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대성전'이 대중에게 널리 읽히고 잘 알려져 있는 인기작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⑤ 소대성은 초년에 결식하고, 이 승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결보기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흥중에 큰 뜻을 품었을 수 있으니, 지체나 처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는 관계가 없다.

3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소대성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고 아껴주던 이 승상이 죽자 자신을 누가 알겠냐고 말하며 탄식한다. 그러므로 아득하고 허탈한 상태를 나타내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전전반측(輾轉反側)은 '걱정거리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한다.
- ③ 사생결단(死生決斷)은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덤벼듦.'을 뜻한다.
- ④ 삼십육계(三十六計)는 '서른여섯가지의 계략, 형편(形便)이 불리(不利)할 때, 달아나는 일'을 가리킨다.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憤)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의 의미이다.

4 미루어 알기

소생이 이 소저를 걱정하고 닥칠 위기에 대비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조영의 재주가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인데, 조영이 칼을 두 번 허비하여도 소생을 죽이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② '제 비록 무도(無道)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 이제 저들을 배어 분한 마음을 풀고자 하나 그렇게 한즉 어진 사람의 후사를 끊어지게 할지라.'에서 알 수 있다.
- ③ '내가 끝내 금은만 생각하고 몸은 돌아보지 아니하니'에서 알 수 있다.
- ⑤ '처음에 너를 타일러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거늘'에서 알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 시절 병부상서 소양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청룡사 노승에게 거액을 시주하고 현몽한 뒤 소대성을 얻는다. **전개** 소대성이 열 살이 되던 해 부모가 홀연 세상을 떠나고 대성은 집을 나가 품팔이와 길걸음으로 연명하다가 이 승상을 만난다. 소대성의 인물됨을 알아본 이 승상은 자신의 딸 채봉과 소대성을 약혼시키려 하니, 부인과 세 아들은 소대성의 신분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위기** 혼인 전날 이 승상이 병으로 죽고, 왕 부인은 가족들과 모의한 뒤 자객을 보내 대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대성은 도술로 위기를 모면하고 집을 떠난다. **절정** 대성은 노승을 만나 병법과 무예를 익히고, 5년 후 적군에 둘러싸여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황제를 구한다. 이에 황제는 대성을 대원수에 임명한다. **결말** 이후 노왕이 된 대성은 그를 기다린 채봉을 왕후로 맞이한 뒤 행복한 삶을 산다.



052

심청전 - 작자 미상

● 시험 출제 포인트 | 죽음, 권선징악

01 ② 02 ② 03 ④ 04 ⑤

1 내용의 이해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제사를 바치는 부분은 있지만, 심 봉사가 장 승상 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심청은 사당에 하직한 후에야 심 봉사에게 자신이 인당수 재물로 팔려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심청은 모친과 재회하지만, 모친은 광한전 맑은 일이 분주해서 다시 이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심 봉사는 남경 뱃사람들을 향해 '네 이놈 상놈들이!'라고 말하며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장 승상 부인은 심청이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손수 잔을 부어 흐느끼고 있다.

2 구절의 의미 파악

㉠은 심 봉사가 자신이 고생한 것을 한탄하는 말이 아니라, 고생스럽게 키운 자식을 잃게 된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심청이가 인당수에 제물이 되는 꿈을 길몽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③ 자신이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 ④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목숨을 끊는 것이므로 극진한 효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심청이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시켜 주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기뻐하고 있다.

3 서술 방식의 이해

㉡에서 등장인물은 장 승상 부인인데, 서술자가 장 승상 부인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심 소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는가?' 등을 통해 장 승상 부인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장 승상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다 걸어 두고 날마다 보았으나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물이 흐르고 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 ③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이가 살았는가 생각한 것에 대해 서술자가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⑤ 장 승상 부인이 심청의 글을 벽에다 걸어 둔 날부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빛이 변하고 물이 흘렀다는 내용이 요약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심 봉사를 '선'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심청을 선의 중심 인물로 보아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 '심청'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므로 선한 인물이 복을 받는다는 주제의식과 이름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 따른다면, 심청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므로 아버지와 재회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③ 심청이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재회한다는 것은, 심청이 원하던 일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의 일환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극진한 효성에 따른 것이므로 유교적 이념인 효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

053

심청가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열거, 의태어, 언어유희, 물질, 골계미

01 ④

02 ①

03 ④

04 ③

1 작품의 종합적 이해

뽕파의 욕심 많음과 몰인정함이 나와 있을 뿐 지배층의 횡포나 억압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대구, 열거, 의태어, 언어유희를 사용한 해학적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주로 일상어를 구사하나 '자원 출가(自願出嫁)', '여필종부(女必從夫)', '조자룡(趙子龍)이 월강(越江)하든 청충마(靑驄馬)나 있거드면'과 같이 한자어나 한문 어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③, ⑤ 판소리의 특징에 해당한다.

2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보기〉에서는 지아비에 대한 공경, 즉 남편에 대한 공경과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윤리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화자의 입장에서 뽕파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비판할 수 있다.

3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A]에서는 뽕파의 행동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열거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조조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4 발상 및 표현 방식의 유사성 파악

①은 '열녀(烈女)'의 '열'이 '십(十)'과 같다는 데서 착안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③에서는 반복적 표현이 나타날 뿐 언어유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배암'과 '땀다', '쓰르라미'와 '쓰다'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 ② '서방'과 '남방'에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 ④ '감을 잘 따니', '감을 잘 잡겠네'에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 ⑤ '양반'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전체 줄거리

발단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봉사가 객씨 부인과 살고 있었는데, 객씨 부인은 청을 낳은 후 7일 만에 죽고 마을 사람들은 심 봉사를 측은히 여겨 청에게 젖을 먹여 준다. **전개** 심청은 건강하게 자라나 심오 세에 이르러서 심 봉사를 극진히 공양하는데, 어느 날 늦게 귀가하는 청을 찾아 나선 심 봉사는 실족하여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몽은사 주지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주를 약속한다. **위기**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남경 상인들에게 몸을 팔고 인당수에 빠지게 된다. **절정**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인간계로 돌아온 심청은 황후가 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심청이 떠나고 난 뒤 뽕파와 같이 살던 심 봉사는 잔치 소문을 듣고 황성으로 상경하는 길에 뽕파의 농간으로 우여곡절을 겪는다. **결말** 고생 끝에 맹인 잔치에 참석한 심 봉사는 황후가 된 심청과 해후하고 눈을 뜨게 된다.



판소리

054

적벽가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판소리, 골계미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①

1 작품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영웅적 인물의 행위보다는 하층 군사들의 애환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영웅적 행위를 초점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이 글은 판소리 사설로서 음악적 요소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② 군사들의 설움이 나열되고 있다.
- ③ 피지배 계급인 하층민이 군사로 참전하여 겪는 고통을 형상화하였다.
- ⑤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 이야기를 판소리로 재창조하였다.

2 준거에 다른 작품 감상

'적벽가'는 외국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작품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적벽가'의 주된 미의식인 골계미가 드러난 장면을 찾아 심화 학습할 수 있다.
- ③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찾아 비교 학습할 수 있다. '적벽가'에는 원작에는 없는 '군사 설움'과 '군사 점교'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 ④ '적벽가'는 원작에서의 전쟁의 의미를 달리 보고 있다. 전쟁을 영웅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군사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심화 학습할 수 있다.
- 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 '적벽가'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있는지 심화 학습할 수 있다. "삼국지연의"에서 영웅적 인물이었던 조조가 '적벽가'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3 인물들의 생각 파악

㉔은 여러 가지 전쟁의 예를 들면서 공을 세워 물러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㉔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한다.
- ④, ⑤ ㉔은 전쟁의 승패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닥쳐올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4 구절의 의미 파악

㉔은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로 전쟁 속의 불안감이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㉔은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장차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앞으로의 부정적 상황, 즉 조조의 패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㉔은 하루 종일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④ ㉔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달래며 한 말이다.
- ⑤ ㉔에서는 그물에 걸린 고기에 자신을 비유하여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5 판소리의 장단 특징 파악

한 군사가 부모님을 걱정하며 몹시 슬퍼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사설의 전개가 느리거나 슬픈 대목에서 활용되는 '진양조'가 적절하다.

전체 줄거리

발단 제갈공명을 참모로 데려오기 위해 유비는 삼고초려를 한다. **전개**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을 평정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조조의 군사들은 설움을 늘어놓는다. **위기** 조조의 선봉 부대인 하후돈은 공명에게 패하고, 뒤이어 벌어진 장판교의 싸움에서도 유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을 무찌른다. **절정** 제갈공명은 손권, 주유와 손을 잡고 적벽 대전에서 조조의 백만 대군을 전멸시킨다. **결말** 전쟁에 패한 조조는 도망을 가나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 목숨을 구걸하여 목숨만 건지게 된다.



본문 196~197쪽

판소리

055

홍보가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매품, 양반, 돈

01 ③

02 ③

03 ①

04 ⑤

1 내용 일치 파악

호방이 마삿은 따로 주겠다고 하자 홍보는 걸어갈 터이니 그 돈을 달라고 한다.

2 인물의 성격과 태도 파악

홍보는 돈을 벌기 위해 선뜻 매품을 팔겠다고 나서는 것에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껌작을 열 때에도 가족들이 위험할까 봐 나가 있으라고 하고 홍보 자신이 껌작을 여는 것에서도 홍보가 자신의 안전보다 가족의安危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홍보는 관아에 양식을 빌리러 가는 처지이면서도 다 떨어지고 해진 것 일망정 양반의 차림새를 고수하고 있으며, 호방에게 양반 체면에 공대를 할 수 없어 말끝을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 ② 홍보는 마삿을 받아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에 옳지 ~ 몹쓸 사람!” 이라고 호통을 치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있다.
- ④ 호방은 가난한 홍보의 처지를 알고 매품팔이를 권하고 있다.
- ⑤ 홍보 마누라는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라고 말하며 홍보가 가져온 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3 인물의 외양 표현 및 한자 성어 이해

[A]는 홍보의 남루한 차림새를 표현한 부분이다. ‘폐포파립’은 다 해진 옷과 부러진 것, 너절하고 구차한 차림새를 뜻하는 말로, [A]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삼순구식: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풍찬노숙: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④ 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문전걸삭: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음을 의미한다.

4 준거에 따른 이해

㉠은 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도덕이나 윤리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나 인간 소외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과 ㉡에는 돈의 위력과 중요성이 나타나 있다.
- ② ㉠에서는 돈에 따라 삼강오륜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③ ㉠은 돈의 위세가 대단함을 보여주며, 돈을 가진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돈에 의해 사람 목숨이 좌우된다는 것에는 돈의 부정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형인 놀보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홍보를 내쫓는다. **전개** 홍보는 매품을 파는 등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나 가난한 삶이 계속된다. **위기** 홍보는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가 가져다준 박씨를 심어 박을 얻는데, 이 속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와 홍보는 부자가 된다. **절정** 이 소식을 들은 놀보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박씨를 하나 얻는데, 이를 심어 난 박씨에서 온갖 오물과 괴물들이 나와 벌을 받게 된다. **결말** 홍보가 놀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형제는 화목하게 살게 된다.



본문 198~199쪽

민속극

056

봉산 탈춤 _ 작자 미상

●시험 출제 포인트 | 호통, 화해, 풍자, 독립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③

1 작품의 특징 파악

탈춤의 무대는 객석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이 진행된다.

오답피하기

- ① ‘봉산 탈춤’은 전체 7과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과장 사이에 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양반을 희화화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③ 각 재담의 끝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은 연주에 맞춰 춤을 춘다.
- ⑤ 말뚝이는 비속어와 한자어를 사용하여 하층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를 동시에 보여 준다.

2 작품의 구조 파악

재담의 구조는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말뚝이와 양반의 일시적 화해’ 순으로 반복되고 있다.

3 등장인물의 특징 이해

이 글에서 ‘악공’은 음악을 연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뚝이가 악공을

극으로 끌어들이고 있기는 하나 극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 '말뚝이'는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휘두르는 마부로 등장한다.
- ② '말뚝이'는 양반들을 회화화하고 풍자하는 인물이다.
- ④ '양반'은 우스꽝스러운 외양에 경박한 모습을 보이고,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보여 주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⑤ '양반'은 시를 짓고 파자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허세와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4 구절의 의미와 기능 파악

Ⅲ에서 생원과 서방은 파자 놀이를 통해 양반으로서의 학식을 뽐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무식함과 허위를 드러내고 있다. 생원과 서방은 서로를 칭찬하며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쟁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Ⅲ에서 양반들은 제대로 시를 짓지 못하고 지명이나 사물을 나열하여 겨우 끝 글자만 맞추는 무지함을 보인다.
- ③ Ⅲ에서 파자 놀이는 수수께끼식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놀이와 다름없는 것이다.
- ⑤ Ⅲ과 Ⅳ에서 '양반'은 시를 짓고 파자 놀이를 하면서 그들의 허세와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5 제재의 기능 파악

말뚝이와 양반의 갈등이 춤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됨을 보인다. 또한 '춤'은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재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재담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6 준거에 따른 표현 파악

㉔에는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고, ㉔에서는 ‘노새 원님(노 생원님)’에서 비슷한 음을 사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민속극

057

양주 별산대 놀이 _ 작자 미상

본문 200~201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돼지우리, 돈, 적극적, 직설적

01 ⑤ 02 ③ 03 ② 04 ③

1 작품의 특징 파악

양주 별산대놀이는 민속극의 하나인데, 민속극의 특징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도 쇠뚝이가 의막을 정할 때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그저 까끼걸음으로 장대를 돌기만 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다른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음악 반주에 따른 춤으로 진행된다.
- ② '한량'의 자식, '바닥의 아들놈'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양반들을 돼지 취급하거나 구색에 맞지 않는 의관을 문제 삼아 권위를

조롱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면극의 대본으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나온다.

2 인물의 특징 파악

쇠뚝이는 양반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고(ㄴ), 생님은 돼지우리 의막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쇠뚝이의 조롱도 모르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ㄷ).

3 구절의 의미와 기능 파악

㉔은 비유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말뚝이의 능청스런 말장구로, 돼지우리를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③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함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한자의 음만 말하게 하여 생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4 다른 작품과의 비교

양반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평민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생원과 서방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와 허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② ㉔에서는 쇠뚝이가 구색에 맞지 않게 옷을 입은 양반을 '바닥의 아들놈'이라며 직설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④ ㉔에서 파자 놀이는 실제로는 수수께끼 놀이로, 양반들의 무지와 허위를 드러낸다.
- ⑤ ㉔에서는 쇠뚝이의 조롱을 통해, ㉔에서는 양반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민속극

058

하회 별신굿 탈놀이 _ 작자 미상

본문 202~203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팔대부, 동조, 학식, 직설적

01 ④ 02 ② 03 ① 04 ①

1 작품의 특징 파악

탈춤은 각 과장별로 별개의 주제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 연결이 일관적이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양반에 대한 거침없는 조롱과 풍자가 나타난다.
- ② 공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 ③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정해진 대사대로 연희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반응이나 전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내용이 가감된다.

2 탈춤의 기능 파악

〈보기〉의 내용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과 폭로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목인 또는 지원 아래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연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탈놀이를 통해 갈등과 저항을 줄이고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양반들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기존 체제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3 표현상의 유사성 파악

초랭이는 하루 계층을 대표하여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인물로, 비속어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직설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③ 양반과 선비의 말하기 방식이다. 그런데 양반과 선비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무지와 허위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4 작품의 사회적 기능 파악

[A]에서는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반'의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①이 적절하다.



059

꼭두각시놀음 - 작자 미상

본문 204~205쪽

● 시험 출제 포인트 | 돌모루집, 평안 감사, 가부장

01 ④ 02 ⑤ 03 ④ 04 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표 생원과 꼭두각시의 갈등, 박 첨지와 평안 감사의 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중심인물을 두고 일련의 사건을 전개하는 통일성 있는 방식의 구성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꽤 씹스런 계집들'과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작은 집'과 관련한 대화나 '방간지 망간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박 첨지가 꼭두각시와 돌모루집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산받이', '대잡이'는 사건과 상관 없이 등장하는 인물에 해당한다.

2 사실적 내용의 이해

꼭두각시와 표 생원 사이에 자식이 없어 근심이라고 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표 생원은 꼭두각시와 이별한 뒤 돌모루집을 첩으로 삼았다.
- ② '여러 해포 만에 만나긴 만났으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사도 싫고 나는 갈 터이니', '아무 말 없이 화가 나서 꼭두각시한테 머리를 딱 들이받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모루집은 꼭두각시를 본처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 ④ '인사도 싫으니 세간을 나눠 주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미루어 알기

박 첨지가 돌모루집에게는 돈이 되고 가치 있는 땅이나 뗏목, 장롱 등의 세

간을 주고, 꼭두각시에게는 고개에 있는 하루같이 정도의 땅이나 나무뿌리, 독 깨진 것 등 가치 없는 것을 주는 것으로 보아 표 생원을 대변하여 꼭두각시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박 첨지가 돌모루집과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② 박 첨지가 표 생원의 재산을 탐하려고 하는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③ 박 첨지는 꼭두각시와 돌모루집, 표 생원의 갈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
- ⑤ 박 첨지는 표 생원을 대신해 꼭두각시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표 생원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상냥하지만 실제로는 억압과 부정을 저지른다는 의미로, 권력자들의 허위를 드러낸다.

오답피하기

- ① 행차를 가려다가 꿩 사냥을 온 것은 일도 하지 않고 풍류를 즐긴다는 것이다.
- ② 자신이 꿩 사냥을 하려고 하니 물이꾼을 하나 빨리 사들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는 권력자가 서민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억압적인 행동이다.
- ③ 품팔이를 가리는 산받이에게 얼마를 주냐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④ 집에 갈 노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용까지 서민에게 부가하려는 권력자의 비리를 보여 준다.



memo

d i d i m d o l

